

碩士學位論文

*Macbeth*에 나타난 죄와 벌



濟州大學校 大學院

英語英文學科

梁 斗 信

2008年 12 月

Macbeth에 나타난 죄와 벌

指導教授 權 英 根

梁 斗 信

이 論文을 文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8 年 12 月

梁 斗 信의 文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印

委 員 _____ 印

委 員 _____ 印

濟州大學校 大學院

2008 年 12 月

A Study of
The Sin and Punishment in *Macbeth*

Too Shin Yang
(Supervised by professor Kwon Young Keun)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Arts

December 2008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GRADUATE SCHOOL
CH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I. 서 론	1
II. 죄의 근원: Witches	6
III. 제4의 마녀: Lady Macbeth	18
IV. 죄와 벌: Macbeth	29
V. 결 론	52
Bibliography	55
Abstract	58

I. 서 론

엘리자베스(Elizabeth)시대 사람들은 신이 인간과 세계와 전 우주를 “질서(order)”라고 부르는 어떤 자연적 법칙에 따라 창조하였다고 믿고 있다. 우주의 모든 구성요소들은 어떤 위계적 원리에 따라 질서 있게 배열되어 제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개념은 “존재의 대 사슬(a great chain of being)”이라는 개념으로 표현된다. 이 개념에 따르면 우주의 각 요소는 그 자체의 내적 질서 또는 그 자체의 작은 위계를 지니고 있다. 우주 전체는 대우주(macrocasm)로, 인간은 소우주(microcosm)로 인식하고 있는 엘리자베스 시대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시대에 불길한 흉조나 혼란이 발생하면 그것은 역시 소우주인 인간사회에 어떤 무질서와 악이 팽창하였거나 그렇게 될 가능성을 예시하는 전조로 이해했다. 지진과 같은 자연의 이변은 인간사회 내의 어떤 이변, 즉 왕의 살해나 반란과 음모와 같은 질서를 파괴하는 불길한 징조로 보았다.

왕권신수설의 영향을 받은 르네상스(Renaissance) 시대인 들에게는 질서가 핵심적인 개념이었는데, 질서 파괴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 틸야드(E. M. W. Tillyard)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To us chaos means hardly more than confusion on a large scale; to an Elizabeth it meant the cosmic anarchy before creation and the wholesale dissolution.¹⁾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서 무질서라는 말이 큰 규모의 혼란이상의 의미를 줄 수는 없지만, 16세기 엘리자베스 시대 사람들의 경우에는 무질서는 창조이전의 우주의 대혼란 그리고 대대적인 파괴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국가는 전체 우주계의 일부로서의 대우주와 소우주로서의 인간 개인사이의 중간 단계이고, 신이 창조한 이 세 단계 즉 우주, 국가, 개인이 서로 조화관계를 이룰 때 비로소 질서가 확립되었다.

1) E. M. W. Tillyard, *The Elizabethan World Picture*, New York: Vintage Books, 1945, p.16.

엘리자베스 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권을 부여받고 신의 통치권을 위임받은 왕을 살해하는 것은 자연의 질서를 파괴하는 가장 큰 죄악이었다. 이러한 시대의식을 셰익스피어(Shakespeare)는 『맥베스』(*Macbeth*)에서 던컨 왕(Duncan)의 죽음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데 던컨 왕의 죽음을 “자연세계에 구멍이 뚫린 것, breach in nature”(II. iii. 106)과 같은 것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또한 던컨 왕을 죽인 맥베스(Macbeth)와 맥베스 부인(Lady Macbeth)은 그들이 저지른 범죄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파멸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그가 저지른 죄는 전 국토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인간 사회에서 발생한 죄악이 대 우주의 자연 질서까지 파괴 하고 있는 이미지를 담고 있는 『맥베스』의 중심 주제는 “야망(ambition)”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 야심의 주제는 극 전반에 걸쳐 특히 죄와 벌(sin and punishment)이라는 분위기에 의해 주로 전개되고 있다. 죄에 대한 정의는 다양 하지만 대체적으로 “죄란 도의에서 벗어난 잘못된 행위나 일, 넓게는 법률적·도덕적 또는 종교적 규범에 위반된 행위전부를 가리키지만 특히 종교적인 의미에서의 배반 행위를 법률상의 범죄와 구별하여 죄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²⁾ 그런데 기독교적 관점의 죄는 전통적으로 아담(Adam)과 이브(Eve)의 타락에서 찾고 있다. 많은 비평가들이 이 작품에 나타난 죄와 벌에 대해서 연구해왔지만 신학적 교의를 작품 해석의 준거로 삼아서 연구된 것은 흔하지 않은 것 같다. 죄에 대한 주제는 인간 연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 하면서도 보편적이다. 악을 행한 인간이 느끼는 그 심리적 상태, 영혼 속에서 깊은 죄의식을 느끼면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성서 신학적 죄론을 근간으로 하여 분석하는 것 자체로 의미가 있는 작업이라 사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셰익스피어의 『맥베스』(1605)를 텍스트로 하여 작품 속에 깔려 있는 죄에 제반 양상들과 그에 따른 벌에 대하여 기독교적 죄론에 기반을 두고 분석 연구하여 이 작품의 예술성을 밝히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마녀들의 존재의 의미와 그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결국 질서 파괴의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마녀들의 존재 가치와 그들과 맥베스와의 상호 관련성을 연구하여 악의 본체로서의 마녀들을 분석 고찰하게 될 것이다. 『맥베스』에서 유혹자는 세 마녀이지만 과연 그 유혹

2) 『세계대백과사전』. vol 24. 서울: 동서 문화 출판, 1993. p.14491.

의 실체가 맥베스 외부의 존재인 세 마녀인지 아니면 어디까지나 유혹의 실체는 맥베스 자신이며 세 마녀는 단지 맥베스의 마음에 투영된 하나의 상징(symbol)에 불과한 지의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될 것이다.

제3장에서는 이 극에서 던컨 왕 살해에 주도권을 가지고 압도적으로 맥베스로 하여금 악을 행하여 몰락에 이르게 하는 맥베스 부인을 살펴 보고자한다. 왜냐하면 그녀가 맥베스의 편지에서 마녀들의 예언을 읽을 때, 그녀의 반응 속에 한 가닥의 의심, 회의 또는 주저의 흔적을 전혀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녀의 유일한 근심이라면 그 예언을 실행 또는 완성할 수 있는 맥베스의 능력에 관한 것이며, “나의 혀바닥의 용맹, valour of my tongue”(I. v. 27)이 그를 설득 시키게 될 것이라 확신하는 그녀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작품에 등장한 또 하나의 악의 양상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맥베스 부인은 극의 처음 부분에서는 여성다움이 없는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속성을 지니고 죄악을 실천하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으나, 그 이후 극심한 정신적 혼란에 빠지고 자살까지 하게 되는 과정을 통해 셰익스피어가 질서의 상징적 파괴의 결과에 대해 어떻게 그리려고 하는 지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제 4장에서는 용맹스럽고 나라와 임금에 충성하던 맥베스가 마녀들과 맥베스 부인의 독려에 의해 던컨 왕을 죽이고 그 결과 벌을 받아 과멸에 이르는 과정을 신학적 이론을 접목하여 다루게 될 것이다. 맥베스는 왕위를 차지 한 후에도 계속 해서 그 왕관을 자신의 가문으로 이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살인은 계속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죄에 따르는 벌은 가혹하기만 하다. 따라서 본장의 핵심은 맥베스가 던컨 왕을 살해하게 된 동기와 그 과정 그리고 살해 이후에 그가 받고 있는 벌의 종류와 그 양상을 기독교적 의미의 죄와 벌의 관점에서 분석하게 될 것이다.

죄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다. 죄는 법률·도덕적 규범·종교적 계율에 어긋나는 일이다. 범죄는 사회의 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서 법에 의해 형벌이 가해진다. 또한 범죄는 구체적 행위에 바탕을 두고 구성되지만, 도덕적 죄책감이 생기는 밑바닥에는 일반적으로 양심의 가책이란 것이 있다. 이 죄의식을 일어나게 하는 근거에는 신과 같은 초월적 존재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되어 왔다. 그러나 도덕적인 양심도 종교적인 양심에 의해서 촉발되는 수가 있으므로 도덕적인 죄와 종교

적인 죄는 엄밀하게 구별되지 않는다. 영어로는 범죄에는 crime이 죄악과 죄의 식에는 양자를 포함한 sin이 사용된다.³⁾

철학적 의미의 죄의 관념은 인간이 종교적으로는 신의 계시나 계율을 무시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불신앙의 태도이다. 죄의 관념은 인간의 종교의식의 발달에 따라 변천 해왔는데 처음에는 외면적 형식적으로 생각되던 것이 차차 그 내면적 의의가 강조되어 죄책의 관념이 생기고 속죄의 의식이 요구되게 되었다. 특히 기독교의 죄의 관념에 의하면 인류는 그 조상의 원죄 속에서 죄를 갖고 태어나며, 그로부터 일어나는 각 개인의 자범죄가 있다. 또 금지된 행위를 했는가 혹은 명령된 행위를 게을리 했는가에 따라 의식적인 죄와 무의식적인 죄가 있고, 또 죄의 태도에 따라 외부적 죄와 내부적 죄로 구분된다. 또 의식의 유무에 따라 악의의 죄와 무지의 죄, 또 욕망에 의한 악함의 죄 등이 있다. 대죄 혹은 치사적 죄는 인간을 신의 적으로 만들고 신의 최종 목적에 반역하여 영원한 상실을 가져오는 도덕적 위반이다. 이를 치사적 죄라 함은 그 영혼이 신의 은총을 잃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소죄는 신에 대해서 형식적인 증오나 신앙의 포기일 뿐 아니라 신의 의지를 거부하는 죄를 말한다.⁴⁾

본 논문에서 죄의 개념은 위에 언급한 죄에 대한 일반론과 철학적 죄론을 근간으로 하여 성서 신학적 죄론을 적용했음을 밝혀둔다. 성서 신학적 의미의 죄에 대하여 『브리태니커사전』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모든 인간이 나면서부터 처하게 되는 죄의 상황이나 상태, 또는 그 기원이 첫 사람인 아담의 죄에 있다고 보며, 아담 이후로 그의 죄책이 후손들에게 유전되었다고 본다. 인간의 상황 즉 고통, 죽음, 죄를 향하는 보편적인 경향은 창세기 처음 몇 장에 나오는 첫 사람 아담의 타락에 의해 설명하고 있다.⁵⁾

부연하면 창세기 3장에 따르면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 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창2:17).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순종하는가

3) 『학원세계대백과사전』, Vol. 26. 서울: 학원출판공사. 1993. p.453.

4) 『세계철학대사전』, 서울: 교육출판사. 1998. p.1016

5) 『브리태니커 세계대백과사전』 *Britannica World Encyclopedia* Vol. 17. 서울: 브리태니커 동아일보 공동출판, 1993. p.55.

아니면 불순종 하는가를 시험한 것이다. 그러나 마귀를 상징하는 뱀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말로 이브를 유혹한다. 결국 이브는 뱀에게 속아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욕망으로 선악과를 먹고 이를 아담에게도 주어 먹게 함으로써 인류에게 죄의 씨앗을 심어 주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아담의 원죄는 인간들을 죄악 속에서 고통과 고난 그리고 두려움에 떨면서 유리하는 존재로 타락시켰던 것이다.

그리고 본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신학사상은 당시에 셰익스피어에 영향을 주었던 칼빈(Calvin), 루터(Luther), 아퀴나스(Aquinas) 등으로 국한한다.



II. 죄의 근원: Witches

『맥베스』는 초자연적인 요소인 세 마녀로 시작된다. 『맥베스』에 있어서 마녀들은 그 작품의 해석에 특별한 의미를 갖는 존재들이다. 세 마녀는 이 극의 액션을 주도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며 맥베스가 죄에 빠지게 되는 주된 원인으로 그가 쓰러질 때 까지 영향을 미친다. 극의 시작부터 자연계 질서의 요동을 상징하는 뇌성과 번개가 치고 있고 국가에는 내란이 있다. 마녀들의 등장은 이 작품이 질서의 파괴로 인한 죄로 시작되고 있음을 뜻한다.

뱅크(Banquo)와 맥베스는 악의 상징인 마녀들을 “어둠의 앞잡이, instrument of darkness”(I. iii. 124)라고 부르고 있다. 또 마녀들은 “애매한 말, the equivocation of the fiend”(V. v. 43)을 하는 자들. 그리고 “거짓말 하는 악마들, juggling fiends”(V. viii. 19), “알지 못할神通력을 가진 자, unknown power”(IV. i. 69)라고 부르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마녀들이 어둠과 무질서에 깊이 연결 되어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게 된다. 이 “불완전한 말을 하는 자들, imperfect speakers”(I. iii. 68)은 애매한 말로 인간을 유혹하여 과멸로 이끈다. 이 애매함의 대표적인 말이 “아름다운 것은 추한 것, 추한 것은 아름다운 것, Fair is foil, and foul is fair”(I. i. 11)이라는 표현이다. 선과 악의 가치가 전도된 상황에서 “밤의 악한 무리들은 먹이를 찾으려고 일어난다, Night's black agents to their preys do rouse”(III. ii. 53). 이 마녀들에게 걸려든 맥베스가 “이렇게 나쁘고도 좋은 날씨는 처음 보았소, So foul and fair a day I have not seen”(I. iii. 38)라고 마녀들과 같은 차원의 애매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처럼 가치가 전도된 상태에서 맥베스에게 던진 “장차 왕이 된다, that shall be King hereafter”(I. iii. 50)는 마녀들의 말은 곧바로 맥베스의 온 몸에 마치 독처럼 감염된다.

이러한 마녀들과의 교감은 그가 머지않아 마녀들이 몰고 오는 어둠의 세계 속으로 빠져 들어 가는 것을 예시해준다. 이에 대해 와이싱거(Herbert Weisinger)는 마녀들의 존재를 맥베스 자신의 무의식의 소산으로 보고 있다.

Macbeth accepts the evil promise of the witches' projection because they so neatly match the evil ambition already in him⁶⁾

이라 하여 세 마녀의 존재를 맥베스 자신의 무의식적 소산으로 보고 있다. 사실 세 마녀들의 예언은 맥베스가 그들을 만나기 이전부터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던 권력에 대한 야심이였다. 맥베스의 내면에서 볼 때 마녀들은 맥베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야심의 투영이다. 마녀는 맥베스에게는 내부의 잠재된 권력욕이 무의식에서 의식위로 표출되는 환상으로 본다. 맥베스의 잠재된 의식 속에 코오더(Cawder)의 영주자리를 얻게 되고 왕이 될 수 있다는 권력의지가 생겼다는 것이다. 그 순간 권력의지가 외부로 튀어나오고 그는 마녀들과 대면하게 된다.

또한 마녀는 맥베스의 내부의 죄의식이요 초자연적이라고 브래들리(A. C. Bradley)도 지적하고 있다.

The words of the Witches are fatal to the hero only because there is in him something which leaps into light at the sound of them: but they are at the same time the witnesses of forces which never cease to work in the world around him, and, on the instant of his surrender to them, entangle him inextricably in the web of Fate⁷⁾

즉 마녀는 맥베스 내부의 죄의식이며 그와 함께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끝없는 파괴적인 힘으로서 그 유혹에 굴복했을 때는 운명의 거미줄에 걸려든다고 본다. 맥베스는 코오더의 영주가 된다는 마녀의 예언이 곧 사실로 밝혀졌을 때 악에 감염되고, 남편의 편지에 접한 맥베스 부인의 독려와 결합될 때 던컨을 시역하는 동기가 된다. 또한 리브너(Irving Ribner)는 마녀들을 셰익스피어가 연극을 위해서 설정한 악의 매개물로서 극적 상징으로 해석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All that we need to know about the witches is that they are

6) Herbert Weisinger, "The Myth and Ritual Approach to Shakespearean Tragedy", *Twentieth Century Criticism*, ed. W. Handy & M. Westbrook, New Delhi: Light & Life, 1974, p. 300.

7) A. C. Bradley, *Shakespearean Tragedy: Lectures on Hamlet, Othello, King Lear, Macbeth*. London: Macmillan., 1958. p.392.

a convenient dramatic symbol for the force of evil in the world.⁸⁾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마녀들의 존재나 유령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심리 분석에만 초점을 맞추고 마법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⁹⁾에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것은 당시대 인에게는 마녀는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커리(W.C. Curry)는 『맥베스』에 가득 차 있는 악의 분위기를 나타내주는 객관적 상관물(objective correlative)로 보기도 한다.¹⁰⁾ 이와 같은 주장들 속에서 마녀들은 대체적으로 악을 상징하는 존재로 파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임스 왕(King James I)은 마녀 학의 전문가로서 귀신론(*Demonologie*)이라는 책을 통하여 유령의 식별이나 행적, 처단에 대해 소상한 기록을 남기고 있다. 엘리자베스조의 관객이나 작가 셰익스피어는 『맥베스』의 마녀를 객관적인 존재라 믿은 것이 분명한데 이를 인간 내부의 무의식의 발로라고 본다는 것은 그만큼 이 비극의 이해의 폭을 제한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마녀들의 역할과 그 영향에 대해 맥베스 자신의 내부적 요인 보다는 외부적 요인을 강조하여 이 경식 교수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셰익스피어 시대 일반인들은 마녀를 추악하고 사악하며 온갖 악행을 일삼는 실제적 존재라고 믿었다. 또한 많은 마녀들이 함께 모여 악마를 숭배하는 잔치를 벌이며 악마와 내통한다고 생각했으며, 올빼미나 아이들을 잡아먹는다고 믿고 있었다. 마녀들은 맥베스가 죄에 빠지게 되는 주된 원인으로 그가 파멸 될 때까지 영향을 미치고 마녀들이 대화를 통해서 볼 때 이 극에서 마녀들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남을 보복하는 무리들임을 알게 된다.¹¹⁾ 『맥베스』에 등장하고 있는 마녀들의 모습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존재하고 또한 여자인 것 같으면서도 남자 같은 수염을 가지고 있다. 맥베스와 뱅코의 눈앞에서 나타나서 이야기하다가 입김처럼 공중으로 사라져버린다.

So wither'd and so wild in their attire,

That look not like th'inhabitants o'th'earth,

8) Irving Ribner, *Patterns in the Shakespearean Tragedy*, London: Methuen Co. Ltd, 1960. p.157.

9) K. Muir, *Shakespeare's Tragic Sequence*, Liverpool: Liverpool University Press, 1979. p.144.

10) W. C. Curry, *Shakespeare's Philosophical Patterns*, Glouster, Mass: Peter Smith 1968. p.93.

11) 이경식, 『셰익스피어』,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3. p.191.

And yet are on't?

(I. iii, 40-42)

아, 저건? 저렇게들 말라빠지고, 옷차림은 괴상하고
지상에 살고 있는 것 같지가 않는데, 그래도 저기
있잖은가?

The earth hath bubbles, as the water has,
And these are of them. -Whither are they vanish'd?
Into the air; and what seem'd corporal,
Melted as breath into the wind. Would they had stay'd!

(I. iii, 79-82)

땅에도 물위 같이 거품이 다 있구려. 지금 그것들 말이오.
원, 어디로 사라져 버렸구먼?
공중으로. 형체가 있는 듯 보이더니 그만 입김처럼 바람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소. 좀더 잡아두고 싶었는데!¹²⁾

마녀들이 “거기서 맥베스를 만나자 꾸나, There to meet with Macbeth”(I. i. 8) 또는 맥베스의 전령이라도 되는 듯 “맥베스가 오고 있다, A drum! a drum! / Macbeth doth come”(I. iii. 30-31)이라고 소리침으로써 그들이 맥베스의 행위와 운명에 영향을 미칠 것을 암시한다. 이것을 증명이라도 하는 것처럼 마녀들은 맥베스가 등장하기 직전 “마술은 걸렸다, the charms wound up”(I. iii. 37) 하고서 안개 속으로 몸을 감춘다. 곧 이어 등장하는 맥베스는 마녀들이 행한 마술에 걸리더라도 하듯이 “이렇게 나쁘고도 좋은 날은 처음 봤는걸, So foul and fair a day I have not seen”(I. iii. 38)이라고 말하고 있다.

마녀들은 두 가지 예언을 가지고 개선하고 돌아오는 맥베스를 환호하고 있다.

All hail, Macbeth! hail to thee, Thane of Glamis!

All hail, Macbeth! hail to thee, Thane of Cawdor!

All hail, Macbeth! that shalt be king hereafter!

(I. iii. 48-50)

만세, 맥베스! 만세, 글라미스 영주!

만세, 맥베스! 만세, 코오더 영주!

만세, 맥베스! 만세, 장차 왕이 되실 분

12) 작품 원문 인용은 *Cambridge School Shakespeare Macbet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에 따르고, 작품 한글 번역 인용은 김재남 역 『셰익스피어전집』 (3정)을 참조했음.

두 가지 예언 중에 첫 번째 “코오더의 영주, Thane of Cawder”(I. i 49)를 적중 시킴으로써 나머지 예언도 믿게 만든다. 그는 마녀들의 정체를 헤아리지 못한 채 “이 이상한 유혹은 흉조도 아니고 길조도 아니다, This supernatural soliciting/cannot be ill, cannot be good”(I. iii. 130-131)라고 판단하고 은연 중 그들의 말을 믿고 죄를 범한 데서부터 비롯된다.

마녀들의 대화 속에 나타나는 “불결한 공기 filthy air, 안개 the fog”(I. i. 13), “일몰, the set of sun”(I. i. 5)이라는 낱말을 통해서 던컨 왕의 살해와 어둠의 세계가 가까웠음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기에 마녀의 성격과 그를 둘러싼 초자연적인 분위기가 이 극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고 하겠다. 마녀들은 존재만 큼이나 모호하다. 인간인지 아닌지, 확실치 않을뿐더러, 여자의 모양을 하고 있으면서도 수염이 나 있는 성의 구별이 불가능한 마녀들은 작품의 시작부터 애매한 존재로서 앞으로 어떤 범죄가 있을 것에 대한 인간 세계에 어둠의 복선을 깔아 주고 있다. 그들이 자아내는 성의 혼란과 암흑의 초자연적인 분위기는 작품 전체에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혼돈의 상태는 자연의 질서를 파괴하여 온 세상이 “혼돈 hurlyburly”(I. i. 3)속에 빠질 것 같은 전조를 보여준다.

칼빈이 아래에서 지적하는 악마들의 속성은 위에서 언급하는 마녀들의 속성과 정확하게 들어맞고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He opposes the truth of God with falsehoods, He obscures the light with darkness, he entangles men's minds in errors, he stirs up hatred, he kindles contentions and combats, everything to the end that he may overturn God's Kingdom and plunge men with himself into the eternal death.¹³⁾

악마들은 진리를 거짓으로 말하고, 빛을 어둠으로 숨기고, 맥베스의 정신을 미혹하고, 증오를 불러일으키고, 분쟁과 싸움을 일으키며, 종국에 가서는 신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맥베스로 하여금 영원한 죽음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다. 칼빈이 지적하는 거짓, 어둠, 미혹, 증오 그리고 분쟁을 통해 영원한 죽음을 가져오게 하는 악한 속성들을 우리는 『맥베스』의 마녀들에게서 그대로 볼 수 있다. 마녀

13) Calvin, *Institutes of Christian Religion*, 2 vols., ed. John T. McNeil and Trans. Ford Lewis Battle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0. 1. xiv. 15

들은 거짓말을 진실처럼 말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중대한 일에 가서는 배반한다. 이 같은 마녀의 속성은 벵코에 의해서 적절하게 잘 지적되고 있다. 그는 맥베스와 함께 마녀들의 예언을 듣고 난 후에 그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But 'tis strange:

And oftentimes, to win us to our harm,
The instruments of darkness tells us truths;
Win us with honest trifles, to betray's
In deepest consequence,

(I. iii. 122-126)

그러나 이상도 하지
흔히 우리를 파멸의 길로 몰아넣으려고
흑암의 앞잡이들은 사소한 일에는
진실을 말하며 유혹하고 중대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를 배반하며 함정에 빠뜨리게 한단 말이야

여기서 “어두움의 도구들, the instruments of darkness”(I. iii. 124)은 “알지 못하는 신통력을 가진 자, unknown power”(IV. i. 69)를 말하는 것이다. 벵코에 의해 “어두움의 도구들, the instruments of darkness”(I. iii. 124)이라 불리우는 이 마녀들은 사실상 이 비극 전체에 어둠이 장막 같이 덮이고 있는 범죄의 분위기를 도입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자연의 질서인 빛을 파괴하는 초자연적인 악의 상징이다.

찰튼(H. B. Charlton)도 이와 비슷한 견해를 말하고 있다.

They are the embodied malevolence which huddles up from nature's earth, roaming the darkness, in thunder, rain and lightning,who hover in the border land between the natural and the supernatural and fuse the two in the dark mystery of men's universe.¹⁴⁾

“어두운 밤에 비밀리에 다니며 흉악한 일을 꾀하는 마녀들, secret, black, and midnight hags”(IV. i. 48)은 거짓을 진실처럼 말하면서 사람을 유혹하고, 중대한 일에 가서는 배반 해버리고 함정에 빠뜨리게 하는 자들이다. 마녀들은 또한

14) H. B. Charlton, *Shakespeare Tragedy*,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52. p.145.

빛을 어둠으로 숨기우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들은 커다란 파괴성도 보여준다.

I'll drain him dry as hay:
Sleep shall neither night nor day
Hang upon his penthouse lid;
He shall live a man forbid.
Weary sev'n-nights nine times nine,
Shall he dwindle, peak, and place:
Though his bark cannot be lost,
Yet it shall be tempest-toast.

(I. iii, 17~25)

그의 남편 놈을 건조같이 말려놓고 말 테야.
그 녀석 눈 까풀위에 밤이고 낮이고
잠이 깃들까 보냐. 저주 받은 사람모양
일곱 밤낮의 구구는 팔십일 일
동안이나 허덕이다가. 수척하여
여위고 시들게 만들어
놓고 말 테야. 배를 파선 시킬 순 없지만.
폭풍에 시달리게 하구 말테야.

선원의 아내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마녀들은 남편인 선원을 밤이고 낮이고 잠을 자지 못하게 해서 건조 같이 마르게 하겠다고 한다. 또한 선원의 배를 파선시킬 수는 없으나 폭풍우에 시달리게 하여 선원에게 고통을 줄 수 있다고 한다. 자신들에게 직접 고통을 주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토록 심한 고통을 주려하는 마녀들의 말에서 그들의 악한 파괴성을 느낄 수 있다.

마녀들은 또한 맥베스가 단검의 환상을 볼 정도로 정신을 혼미케 한다.

Is this dagger, which I see before me,
The handle toward my hand?
Thou marshall'st me the way that I was going;
And such instrument I was to see....
It is the bloody business which informs
Thus to mine eyes.

(II. I, 32~49)

아, 저건 단검이나, 칼자루를 내 손 쪽으로 향하고.....
그래 네가 길을 안내 하겠단 말이지.
나는 너 같은 연장을 쓸 작정이다!

아, 사라졌다. 잔인한 것을 계획하니까 그런 것이
눈에 어른거리는 거지

마녀들은 맥베스에게 왕이 된다는 말로서 죄에 감염시키고 난후에 단검의 환상을
보여줌으로써 왕을 시해하는 것이 운명인 것처럼 믿게 하는 것이다.

맥베스를 죄의 씨로 사로잡은 헤카테(Hecate)는 맥베스가 자신들을 찾아올 것
도 미리 예견하고, 한편으로는 맥베스의 영광을 예언했던 입으로 이제는 자신들
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범하고 나서 파멸될 것을 예언한다.

Upon the corner of the moon
There hangs a rap'rous drop profound;
I'll catch it ere it come to ground;
And that, distill'd by magic sleights
Shall raise such artificial spirites
As, by the strength of their illusion,
Shall draw him on to his confusion:

(III. v, 23-29)

달님 한구석에는
증기 같은 물방울 한 방울이
의미심장하게 매달려있는데,
땅에 떨어지기 전에 받아서
마법으로 증류시키면,
마의 정령들이 나타나고
그 환영의 힘에 끌려 그 늪은 파멸되고 만다.

그러나 마녀들은 그들의 예언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구체적인 내
용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들은 애매하고 확실하지 못한 말을 하여 맥베스가
죄를 범하게 할 뿐 아니라 고통스럽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다. 맥베스는 이미
마녀들의 말에 감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게 된 것이다. 그리고
던컨 왕을 살해하고 자신이 왕이 된 후에도 불안한 맥베스는 마녀들에게 자신의
미래를 알아보고자 한다.

How now, you secret, black and midnight hags!
What is't you do?

(IV. i. 47-48)

오 너희들. 밤중에 비밀히 시켜던 짓을 하는 마녀들!
대체 지금 뭣들 하고 있는가?

맥베스는 누구보다도 마녀들로 인하여 충격적인 고통을 받는다. 그들은 이상한 수수께끼로 미끼를 던져 맥베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놓고는 결정적인 단계에 가서는 배신하여 버린다. 마녀들의 배신은 무사로서의 맥베스를 일순간에 욕망으로 빠뜨리고도 남는 강력하고도 악한 것들이었다.

세 마녀들이 동굴 속에서 가마솥을 끓이고 있다. 시작 장면을 방불케 하듯 천둥이 하늘을 진동할 때 세 마녀들은 마술을 걸기 위해서 끓는 가마솥 속에 독기 있는 내장, 도롱뇽의 눈알, 개구리의 발톱, 박쥐의 털과 개 헛바닥, 독사의 헛바닥, 도마뱀의 다리와 올빼미의 날개 등 온갖 잡것들을 집어넣고 끓이고 있다. 이때 헤카테가 등장하여 부하들의 노고를 치하한다. 헤카테가 합세하여 노래를 부르고 솥 주위를 돌고 있을 때 맥베스가 나타난다. 마녀들이 온갖 것들을 넣고 끓이고 있는 가마솥처럼 맥베스의 마음은 뒤범벅인 채 들끓고 있는 것이다. “두 배로 고생하고, 두 배로 애를 써서 타라, 불아 끓어라, 가마솥아, 두 배로, Double, double toil and trouble./ Fire, burn; and cauldron, bubble.”(IV. i. 10-11) 이 가마솥의 끓는 장면도 “지옥의 잡탕, hell-broth”(IV. i. 19)과 “지옥의 독수리, hell-kite”(IV. iii. 217, “지옥의 사냥개, hell-hound”(V. viii. 3)등과 연결된다. 세 환영이 따로 나타나 맥베스에게 예언한다.

마녀들은 그들을 찾아온 맥베스에게 가마솥 속에 나타나는 환영들을 통하여 미래를 예언한다. 현실에서 사용될 수 없는 여러 가지 것들을 넣고 주문을 외우면서 가마솥을 끓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을 서로 섞어서 가마솥 속을 혼란의 도가니로 만든다. 그래서 맥베스가 왕위를 차지하도록 유혹했던 예언과 마찬가지로, 가치가 전도된 가마솥을 통하여 나타나는 환영들과 예언을 통하여 마녀들은 맥베스의 죄악을 더욱더 확대 강화 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세 환영이 따로 나타나 맥베스에게 예언한다.

머리에 투구를 쓴 첫 번째 환영은 파이프(Fife)의 영주 맥더프(Macduff)를 조심하라고 경고한다.

Macbeth! Macbeth! Macbeth! Beware Macduff
Beware the Thane of Fife.

(IV. i. 71-72)

맥베스! 맥베스! 맥베스! 경계하라. 맥더프를
과이프성의 영주를.

맥베스는 이 “무장한 머리, Armed Head”(IV. i. 67)가 맥더프의 잘려진 목으로 생각하나 이것은 맥더프에 의해 잘려져 맬컴(Malcolm)에게 바쳐진 자신의 머리였던 것이다.¹⁵⁾ 또한 반란을 일으켜 참수당한 맥던월드(Macdonawald)의 “머리”를 연상시켜 시역을 행한 맥베스에게 닥칠 종말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피투성이의 어린이 모습의 환영”은 역시 맥베스 이름을 세 번 부른 후에 여인에게서 태어난 자는 맥베스를 해칠 수 없으니 계속 과단성 있게 살생 정책을 펴나가라는 말을 한다.

Be bloody, bold, and resolute: laugh to scorn
The power of man, for none of woman born
Shall harm Macbeth.

(IV. I. 79-81)

살생하고 대담하라 그리고 단호하게 하라.
인간의 힘일랑 일소에 붙여라 여자 몸에서 태어난 자
로 맥베스를 해칠 자는 없는 게다.

마녀들은 처음에는 맥베스에게 마음에 왕이 될 것이라는 죄의 씨앗을 심어서 악에 감염시켰고, 이제는 왕을 살해한 맥베스에게는 이제는 구체적이고도 대담하게 살생을 하라고 지시함으로써 마녀들은 어떤 악한 의도를 갖고 맥베스를 이끌고 있는 것이 분명해진다. 즉 마녀들에게는 처음부터 끝까지 악한 목적을 가지고 이극에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마녀들은 맥베스로 하여금 살인에 살인을 거듭하여 급기야는 맥더프 부인과 그 아들을 살해하기에 이르고 그의 최악은 온 나라에 점점 깊이 확산된다.

세 번째 환영은 맥베스에게 사자의 기개와 자부심을 갖고 누가 조롱하든, 누가 애를 태우든, 반역자들이 어디에 있든 상관 말라고 하고 버넘(Birnam)숲이 던시

15) William Leigh Godshalk, *Patterning in Shakespearean Drama*, Mouton: Univ. of Cincinnati, 1973, p.122.

네(Dunsinane Hill)로 들어와서 맥베스를 공격할 때까지 결코 정복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맥베스를 안심시키고 있다.

Be lion-melted, proud, and take no care
Who chafes, who frets, or where conspirers are:
Macbeth shall never vanquish'd be, untill
Great Birnam wood to high Dunsinane hill
Shall come against him.

(IV. i. 90-94)

사자 같은 기개를 가지고 용감할 것, 개의치 말 것,
누가 분개 초조해 하건, 어디에 반역자가 나타나건
맥베스는 영구 불패이나라. 버넘의 대 산림이
던시네인의 높은 언덕을 향하여
맥베스에게 쳐들어오기 전에는

숲이 움직이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 예언은 맥베스로 하여금 반역의 무리들이 제 아무리 강해도 그는 장수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만든다. 맥베스는 버넘 숲이 던세네 안으로 움직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마녀들의 말이 사실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맥컴의 군대들이 나뭇가지를 머리에 이고서 버넘 숲이 움직이게 되었다. 마녀들은 이렇게 애매한 말로서 한편으로는 안심 시켜 놓고서 또 한편으로는 한 인간을 죄를 짓게 이끄는 존재들인 것이다.

결국 자신의 미래를 확실하게 알아보고자 마녀를 다시 찾아갔으나 맥베스는 그들이 보여준 환영들의 말과 왕들의 행렬이 의미하는 바가 다른 것을 알고서 마음에 혼란을 겪는다. 마녀들의 심어놓은 탐욕에 집착했던 맥베스는 마녀들의 예언 뒤에 도사린 “악”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없었다. 마녀들은 맥베스의 운명을 조롱하거나 강제로 범죄를 행하도록 시키고 있지 않지만 악의 초자연적인 대리자로서 “선fair”을 “악foul”으로 끝맺게 하는 능력으로서 맥베스를 유혹하였고 이것은 처음부터 야심을 가진 맥베스가 그들의 유혹에 빠져 죄를 범하도록 한다. 여기에서 마녀들은 인간들을 선으로 부터 떨어지게 하려고 노력하는 어떤 악의 세력의 대행자라고 볼 수 있다.

스펜서(Theodore Spencer)는 맥베스의 행위가 마녀와 같이 악하고 유사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Macbeth's action is like witches' one in that Macbeth repeats unconsciously the witches' speech.¹⁶⁾

맥베스의 행동이 완전히 마녀들의 계략에 함몰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마녀들의 말에 의해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마음은 마녀들이 오도하는 길을 따라 쉽게 죄악의 길로 접어든다.

마녀들은 죄의 근원으로서 맥베스를 죄악으로 이끄는 죄의 원형이다. 『맥베스』에 나타난 마녀들과 맥베스의 관계를 분석해보면 마녀들은 신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인류를 죄악으로 이끌어 파멸하게 만든 뱀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마녀들은 맥베스를 포함한 모든 인간들을 유혹하여 악의 열매를 맺도록 충동 하고 있는 근본적인 죄악의 근원이다.

16) Theodore Spencer, *Shakespeare and the Nature of Man*,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1961, p. 154.

III. 제4의 마녀: Lady Macbeth

마녀들 못지않게 악을 추종하는 인물은 맥베스 부인이다. 맥베스의 경우 가정의 질서는 비교적 원만하게 유지되어 오고 있었다. 비록 성격적인 차이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맥베스와 맥베스 부인 부부를 중심한 그들의 가정질서는 정상적이었다. 그러나 마녀들의 예언에 의해 맥베스의 의식 속에 잠들어 있던 야심이 눈을 뜨고 그 야심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인 던컨 왕 살해라는 인간질서 및 국가질서를 파괴하는 가공할만한 비인간적인 방법이 두 사람 사이에 개입하면서부터 두 사람의 인격과 가정 질서는 서서히 파괴되기 시작한다.

맥베스가 마녀들의 사악한 예언에 감염되어 버렸듯이 맥베스 부인은 남편의 편지를 받는 순간에 죄에 감염되어 버린다. 던컨 왕의 살해 계획을 추진하는 맥베스 부인의 모습은 인간의 기본적인 가치인 선함과 정직에 대해서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 자신의 이해가 걸린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의 모습을 보인다. 맥베스로 부터 편지를 받아 읽고 난 맥베스 부인은 마녀들의 예언을 곧바로 그녀의 목적으로 삼는다. 우유부단하고 나약한 맥베스를 다그치는 그녀에게는 사랑, 자비, 인애와 같은 기독교적 덕목은 하찮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녀는 기독교적인 사랑의 윤리나 동정심의 윤리에 맞서 오직 힘의 의지에 바탕을 둔 강자의 윤리를 추종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드러낸다.

비인간적인 악덕에 사로잡힌 맥베스 부인은 다음과 같이 자신의 마음을 잔인하게 해달라고 악령들에게 기원 한다.

Come, your Spirits
That tend mortal thoughts, unsex me here,
And fill me, from the crown in the toe, top-full
Of direct cruelty! made thick my blood,
Stop up th'access and passage to remorse;
That no compunctions visitings of Nature
Shake my fell purpose, nor keep peace between
Th' effect and it! Come to my woman's breasts,

And take my milk for gall, your murth'ring ministers,
And pall thee in the dunnest smoke of Hell,
That my keen knife see not the wound it makes.
Nor Heaven peep through the blanket to the dark
To cry, "Hold, hold!"

(I. v. 40-54)

자 살인음모에

가담하는 악령들아, 나의 여자의 마음을 버리게 하고
머리끝에서 땅 끝까지 잔인한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하여라. 나의 죄를 영키게 하여 측은한 마음을
부추기는 통로를 막아버려라. 인간이 갖는 양심의
가책이 이 무서운 결심을 뒤흔들거나 달성하기도 전에
단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이 여자의 가슴속에 숨어들어
내 젖을 쓰디쓴 담즙으로 바꾸어라. 너희들 살육의 정령들아,
보이지 않는 형태로 어디서나 세상의 재화를 부르는 무리들아!
어두운 밤이 오너라, 지옥의 시커먼 연기로 너를 둘러싸게
하여라. 나의 날카로운 비수가 그 찢은 상처를 보지 못하도록
하늘도 암흑의 장막사이로 그 것을 엿보고
“중지, 중지”라고 외치지 못하도록.

여자의 마음을 버리고 머리 꼭대기부터 발끝까지 잔인한 마음을 가득 채워 달라는 그녀에게서 성의 혼란을 일으키는 마녀들과 같은 모습을 본다. 이점에 대해서 칸(Coppela Kahn)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Shakespeare establishes the connection between Lady Macbeth and the witches by having her invoke the spirits of evil and ask them to fill her with their spirits.¹⁷⁾

멜컴은 왕권을 회복한 후 마지막 장면에서 맥베스 부인을 “악귀 같은 왕비, fiend-like queen”(V. ix. 35)라고 부르고 있다. 이점을 감안하여 펠퍼린(Howard Felperin)은 맥베스 부인을 네 번째 마녀로 취급하고 있다.¹⁸⁾ 맥베스 부인의 네 번째 마녀로서의 모습은 전쟁터에서 집으로 돌아온 맥베스를 맞이하는 그녀의 말에 잘 나타나 있다. 그녀는 맥베스를 보자마자 “글래미스 영주님! 코더 영주님! 장래는 이 보다 더 훌륭히 되실 어른!, Great Glamis! Worthy

17) Coppelia Kahn, *Man's Estate, Masculine Identity in Shakespeare*, California: Univ. of California Press, 1981, p.177.

18) Howard Felperin, *Shakespearean Representation*,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77, p.288.

Cawdor! Greater then both, by the all-hail hereafter!”(I. v. 54-55)이라고 말함으로써 마녀들과 동일하게 맥베스를 명명하고 있다.

맥베스 부인은 남편이 전해준 마녀들의 예언으로 곧 던컨 왕을 암살할 계획을 세우고, 조금도 머뭇거리임이 없이 맥베스를 악으로 몰아간다. 맥베스 부인은 남편의 성격이 너무 연약하여 결단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그녀는 남편에게 자신의 불러들인 살인의 정령들을 불러 넣어 주려하고 있다.

Hie thee hither,
That I may pour my spirits in thine ear,
And chastise with the valour of my tongue
All that impedes these from the golden round,
Which fate and metaphysical aid doth seen
To have thee crown'd withal,

(I. v, 25~30)

어서 돌아오세요,
저의 결심을 당신 귀에 부어넣어 드릴게요,
그리고 이 혀의 힘으로 혼을 내줄게요,
당신으로부터 황금의 관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모조리 지금 운명과 마력은 협력하여 그 금관을
당신 머리위에 씌워줄 것 같잖습니까?

“황금 관, the golden round”(I. v. 27)생각에 골몰하여 마음속에서 던컨 왕을 이미 살해한 그녀는 맥베스를 왕으로 만들기로 작심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맥베스를 왕으로 만들기로 작심한다. 그 순간 시종이 등장하여 “국왕께서 오늘밤 이곳에 행차 하십니다, The king comes here to-night”(I. v. 31)라는 소식을 전하자 감격하여 “미친 소리, Thou'rt mad to say it”(I. v. 32)라고 소리친다.

맥베스 부인은 던컨 왕 시역을 위해 맥베스가 취해야 할 행동을 설명 한다. 던컨 왕 시해 계획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맥베스 부인은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그 어떤 수단도 정당화시키는 악인의 역할을 담당 하고 있는 것이다. 그녀의 압도적 성격은 마키아벨리(Machiavelli)적 처신으로서 맥베스가 던컨 왕의 살해를 앞두고 불안해하며 초초해 할 때에 다음과 같이 말한다.

Your face, my Thane, is as a book, where man
May read strange matters, To beguile the time,
Look like the time; bear welcome in your eye,
Your hand, your tongue: look like th'innocent flower,
But be the serpent under't, He that's coming

(I. v, 61-65)

당신 얼굴은 수상한 내용이 적혀진 책만 같아요.
세상을 속이려면 세상과 같은 얼굴을 하고, 눈,
손, 혀에 환영의 표정을 나타내세요.
겉으로는 무구한 꽃같이 보이고, 실은
그 밑에 숨은 독사가 되세요.

그녀는 창세기에서 아담을 유혹했던 뱀을 연상케 하는 내용으로 맥베스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마음을 편히 가지도록 권유하고 있다. 맥베스 부인은 세상을 속여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세상사람들이 모르게 하기 위해서는, 겉으로 순진한 꽃처럼 보이거나 실은 악을 계획하고 있는 뱀이 되어야 한다고 맥베스에게 말한다.¹⁹⁾ 그녀는 맥베스와 그녀 자신에게 오로지 권력을 쥐기 위하여 그녀의 인간성과 여성을 희생시킬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다. 이점에 대하여 로지터(A. P. Rossiter)는 “Macbeth's wife was very ambitious, burning in unquenchable desire to bear the name of queen”²⁰⁾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녀는 모든 공적인 장소에서 순수한 꽃처럼 행동하고 사적인 장소에서는 뱀처럼 행동한다.

맥베스 부인은 던컨 왕 살해를 주저하는 맥베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I have given suck, and know

19) 성경에서 뱀의 이미지는 창세기의 아담과 이브 사이의 뱀에 관한 이야기에 잘 나타나 있다. 그런데 『맥베스』에서는 맥베스의 타락현장에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행동하는 맥베스 부인이 이브 역을 대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작품을 전체적으로 파악해 볼 때 맥베스 부인은 이브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뱀과 이브 그리고 아담과의 관계에 대해서 『브리태니커사전』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성경 창세기 2-3장에서 하나님이 진흙으로 한 남자를 만들고 그를 에덴동산에 둔다. 남자의 배필이 될 한 여자가 남자의 신체 중 일부로써 창조된다. 뱀이 여자를 유혹하고, 여자가 남자를 유혹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의 열매를 먹는다. 저주가 뱀에게 내린다. 뱀은 배로 기어 다니고 여자의 후손과 적대관계에 있게 될 것이다. 여자는 아이를 낳는 동안 고통을 당할 것이며, 남자는 먹고 살기위해 고통과 수고를 겪어야 하며, 결국은 죽어야 할 것이라고 한다. 두 사람이 에덴에서 쫓겨난다." *op. cit.* p.96.

20) A. P. Rossiter, *Angel with Horns*, London: Longman, 1970, p.210.

But tender 'this to love the babe that milks met
 I would, while it was smiling in my face,
 Have pluck'd my nipple from his boneless gums,
 And dash'd the brains out, had I so sworn
 As you have done to this.

(I. vii, 54-59)

저는 젖을 먹여보아서
 자기 젖을 빠는 아기가 얼마나
 귀여운가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갓난 것이
 엄마얼굴을 보고 방글 방글 웃고 있을지라도,
 이가 없는 잇몸에서 젖꼭지를 잡아 빼어 그 머리통을
 박살낼 수 있어요. 당신처럼 나도 그렇게 맹세할 수 있다면.

그녀는 자신이 하겠다고 맹세만 하면 갓난아기가 엄마 얼굴을 보고 방긋 방긋 웃고 있을 지라도, 이가 없는 잇몸에서 젖꼭지를 잡아 빼어 머리통을 박살낼 수 있다고 말함으로써 그녀의 악성을 드러낸다. 그녀의 모성까지 포기하고 있다.

맥베스 부인은 맥베스에게 던컨 왕 살해를 위한 계획을 지시하며 용기 있게 행동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When Duncan is asleep
 Whereto the rather shall hid day's hard journey
 Soundly invite him), his two chamberlains
 Will I with wine and wassail so convince,
 That memory, the warder of the brain,
 Shall be a fume, and the receipt of reason
 A limbeck only: when in swinish sleep
 Their drenched natures lie, as in a death,
 What cannot you and I perform upon
 Th'unguarded Duncan? What not put upon
 His spongy officers, who shall bear the guilt
 Of our great quell?

(I. vii, 67~73)

왕이 잠이 들면, 글썽, 낮의 고된 노동 때문에
 곤히 잠이 들것이니까, 두 침실지기를 제가
 포도주로 녹여 놓겠어요. 그러면 뇌수를
 지키는 기억력은 증기같이 몽롱해지고,
 이성의 그릇은 증류기 같이 되고 말 것이네요.
 이렇게 죽은 것 같이 취해 쓰러져서 돼지처럼
 곤드라지면, 당신과 저는 둘이서 무슨 짓인들
 못 하겠어요. 상대는 무방비한 던컨 왕 혼자뿐인데?

그리고 시역의 대죄는 만취한
그 양인에게 덮어씌울 수 있잖아요?

맥베스 부인은 확실하지 못한 예언을 하는 마녀들과는 달리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으로 맥베스의 죄를 범하도록 이끌고 있다.

이와 같이 맥베스 부인에 의해 박차가 가해진 맥베스의 탐욕은 “인생의 장식, the ornament of life”(I. vii. 42)인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 더 이상 주저하지 않는다.

I am settled, and bend up
Each corporal agent to this terrible fear
(I. vii. 80-81)

나 결심했소. 만신에
힘을 분기시켜 이 무서운 일을 단행하겠소.

결국 맥베스 부인은 남편이 전해준 마녀들의 예언만으로 곧 바로 던컨 왕을 암살할 계획을 세우고 맥베스로 하여금 실행하지 않을 수 없는 차원까지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대담성과 과감성을 발휘하여 드디어 맥베스로 부터 던컨 왕 시해 결심을 받아낸다. 그녀는 조금도 머뭇거림이 없이 이브처럼 급속하게 맥베스를 범죄의 길로 몰아가고 있다.

마녀들의 악에 걸려 네 번째 마녀처럼 행동하고 있는 맥베스 부인의 마력은 계속된다. 맥베스 부인은 던컨 왕 살인 후 얼떨결에 피 묻은 칼을 들고 나온 맥베스에게 잠든 호위병의 손에 칼을 쥐어 주고 올 것을 강요한다. 그러나 그가 저항하자 잠자는 사람과 죽은 사람은 한낱 그림에 불과 하다고 말한다.

Infirm of purpose!
Give me the daggers. The sleeping, And the dead,
Are but as pictures; 'tis the eye of childhood
That fears a painted devil. If he do blood,
I'll gild the faces of the grooms withal,
For it must seem their guilt.
(II. ii. 52-56)

헛. 그렇게 대가 약하세요? 단검을 이리 쥐요.
자는 사람과 죽은 사람은 그림 한 가지 아네요

애들 눈이나 마귀 그림을 무서워하는 법이에요.
아직 피를 흘리고 있으면 종놈들 낮에다 발라줘야지
죄를 뒤 집어 씻을 수 있게.

잠자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은 맥베스 부인에게는 아무런 저항 할 수 없는 그림에 불과한 것이다. 또한 그녀는 그림속의 악마 같은 것은 두렵지 않다. 맥베스 부인은 두려워서 살해 현장에 가려하지 않는 맥베스와 달리, 시종들에게 던컨 왕이 흘린 피를 묻혀 그들에게 죄를 뒤집어씌울 궁리까지 한다. 살해 현장에 다녀온 그녀는 “내 손도 당신과 같은 색깔이 됐어요. 하지만 당신 같이 창백한 심장은 되지 않아요, My hands are of your colour but I shame/ To wear a heart so white”(II. ii. 67-68)라고 말하며 괴로워하는 맥베스를 다시 비난한다. 그리고 대양의 물로도 손에 묻은 피를 씻을 수 없다고 괴로워하는 맥베스와 달리 자신의 피 묻은 손을 가리켜 “어서 물을 조금 떠다가 손의 그 더러운 자국을 씻어 버리세요, a little water clears us of this dead”(II. ii. 66)라고 간단하면서도 대답하게 말한다.

그러나 그렇게도 단순하고 과감했던 맥베스 부인의 마력도 던컨 왕 시해사건 직후부터는 영원한 것이 아니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한 대야의 물만 있으면 쉽게 씻어질 줄 알았던 던컨 왕의 피는 이제 아라비아의 모든 향수로도 도저히 지울 수 없는 영원한 고통과 두려움으로 남는다.

Will these hands ne'er be clean?

(V. i. 41)

이 손은 도저히 말끔히 씻어지지 않는단 말인가?

Here's the smell of the blood still ; all the perfumes
Of Arabia will not sweeten this little hand. Oh! Oh! Oh!

(V. i. 47-49)

아직도 피비린내 나는구면. 아라비아의 모든 향수를 가지고도 이 작은 손 하나 말끔히 씻어내지는 못하겠구나. 아! 아! 아!

맥베스 부인은 제4의 마녀로서 범죄 행위에 따라오는 여러 가지 결과들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다. 그녀의 단순성과 상상력결핍은 맥베스보다 더욱 극심한 내적 갈등에 휩싸이게 만든다. 이점에 대해서 홉슨(Alan Hobson)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She has not the imagination to realize either the honor of evil or the probable consequences of murdering the King.²¹⁾

맥베스 부인은 맥베스가 왕이 된 이후로 더 이상 그와 대화를 하고 있지 않다. 뱅코의 살해에 대한 범죄 계획도 맥베스 혼자 세운다. 이제 그녀에게 가득 차 있던 악들은 모두 맥베스에게 전가 되었고 그녀는 공범자로서의 역할마저 상실 당했다. 맥베스 부인은 자신이 범죄의 길로 이끌던 맥베스와의 관계가 끊어져, 그녀는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설 땅을 잃어버린 채 홀로 고립된다. 인간관계의 단절과 소외는 바로 범죄의 결과인 것이다. 인간은 오로지 동료 인간과의 대화 속에서만 인간일 수 있다. 인간을 목적 자체로 보지 않고 수단으로만 대했던 맥베스 부인의 죄악은 맥베스를 파멸로 이끌고 자신의 인간성의 상실은 물론, 남편과의 관계 단절이라는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맥베스 부인은 인간성 상실로 인한 소외감 그리고 허무와 공포감 속에서 고통 받게 된다. 이윽고 그녀는 살해당하는 것이 살해 하는 것 보다 낫다고 다음과 같이 후회를 하고 있다.

'Tis safer to be that which we destroy,
Than by destruction dwell in doubtful joy.
of sorriest fancies your companions making.

(III. ii. 6-9)

살인을 하고 이렇게 불안스런 기쁨 밖에 누리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살해당하는 신세가 더 편안하잖은가
아, 상감! 왜 하찮은 공상을 벗 삼아 고독히만 지내십니까
생각 없음 자연 소멸될 명상을 상대로?

맥베스 부인은 관계성과 대화성의 파괴에 직면하고 있다. 인간성 상실로 인한 소외감의 정도는 허무와 공포감 속에서 고통 받는 그녀의 절규 속에서도 엿볼 수 있다.

Naught's had, all's spent

21) Alan Hobson, Full Circle : *Shakespeare and Moral Development*. London: Chatto & Windus, 1972, p. 132.

Where our desire is got without content:
'Tis safer to be that which we destroy,
Than by destruction dwell in doubtful joy.

(III. ii. 4-7)

다 허무요. 수포지. 욕망이 달성돼도
만족이 없는 한은. 살인을 하고 이렇게
불만스런 기쁨밖에 누리지 못할 바에야.

맥베스 부인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던컨 왕 시해를 지극히 후회하고 있다. 맥베스를 꾸짖는 그녀의 말 속에서도 맥베스 부인에게 불안과 공포가 엄습해 오고 있는 별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How now, my lord? Why do you keep alone,
Of sorriest fancies your companions making,
Using those thoughts, which should indeed have died
With them they think on? Things without all remedy
Should be without regard: What's done is done.

(III. ii. 8~12)

아, 상감! 왜 하찮은 일을 공상을 벗 삼아
고독히만 지내십니까?
생각 앎을 자연 소멸될 망상을 상대로?
구제할 길이 없는 일은 무시해버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지사는 과거지사입니다.

구제할 수 없는 일은 무시해 버리는 수밖에 없고 과거지사는 과거지사에 불과하다며 맥베스의 고민을 없애려 하던 맥베스 부인은 “몽유병, sleepwalking”(V. i. 33)장면에서 자신의 과거를 고백한다. 맥베스와 달리 풍부한 상상력을 지니지 못한 그녀는 마력에 이끌리어 악을 악으로 인지하지 못한 채 죄악을 행하였다. 그리고 죄를 범한 후에야 자신이 저지른 행위의 엄청난 결과를 보고 괴로워하는 별을 받는다. 맥베스 부인의 “인간의 인정, the milk of human kindness”(I. v. 15)은 과거의 던컨 왕 암살을 과거 속에 묻어 둘 수 없게 한다. 맥베스 부인의 말과 같이 구제할 수 없는 일은 무시 되지 않고 그녀를 죄의식에 쫓기게 하여 괴로움을 못이긴 그녀는 “몽유병, sleepwalking”(V. i. 33)고통 속에서 서서히 죽어간다.

맥베스 부인의 심상은 던컨 왕 시역이 행해졌던 그날 밤 그 자리에 항상 머물

러 있다. 그녀는 그 시간에서 조금도 전진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다.

Out damned spot! Out, I say! -one; two:
Why, then 'tis time to do't, -Hell is murky, -Fie,
my Lord, fie! a soldier, and afraid? -What need
We fear who knows it, when none can call our power
To accompt? -Yet who would have thought the old
man to have had so much blood in him?

(V. I. 33-38)

지워져라, 망할 흔적 같으니 지워지라니까! 하나, 둘
이제 단행할 시각이다. 지옥은 캄캄하기도 하네! 아니,
여보, 무인이 다 겁을 내시우?
누가 알까봐 겁낼 것 없잖아요.
우리의 권력을 시비 할 자는 없잖아요. 하지만
그 늙은이에게 그렇게 피가 많을 줄이야 누가 생각인들 했겠어요.

To bed, to bed; there's knocking at the gate.
Come, come, come, come, give me your hand,

(V. I, 62-63)

자, 침실로, 침실로 누가 대문을 노크하고 있군요
자, 자, 자, 자 손을 이리

맥베스 부인의 영혼은 어둠 속에 혼자 갇히게 되어 촛불로도 밝힐 수 없는 어둠 속에서 과거의 기억에 의해 고통을 받는다. 그녀는 밤의 휴식을 원하나 맥베스와 더불어 “천진난만한 잠, innocent sleep”(II. ii. 35)을 죽인 기억 때문에 평안히 잠들 수 없다. 거기에서 예기치 못했던 엄청난 결과의 공범자였던 남편과의 대화 단절로 인하여 외로움과 고통을 담은 몽유병에 시달리고 있다.

맥베스 부인은 마적인 잔인성과 파괴성, 그리고 “인간적인 인정, the milk of human kindness”(I. v. 15)사이에서 갈등하다가 드디어 미치게 되는(madness) 벌을 받게 된 것이다. 맥베스 부인이 “불러들인 밤, Come, thick Night”(I. v. 50)은 이제 그녀가 들고 있는 촛불로 밝히기엔 너무 어둡다. 마녀들의 예언을 읽자마자 왕을 살해할 생각을 하고 남편이 왕관을 차지하도록 하기위해 악령을 불러들였던 그녀의 모습은 제4의 마녀를 방불케 한다. 또한 셰익스피어 자신도 맥베스 부인으로 하여금 마녀들의 역할을 대신 시키려는 듯이 마녀들의 등장하지 않는 장면에선 그녀를 등장시켜 맥베스를 범죄의 길로 이끌고 있다.

나이트(G. Wilson Knight)의 말대로 “그녀는 악한 열정에 사로잡힌 여자, She is a woman possessed—possessed of evil passion”²²⁾라는 지적은 정확하다. 맥베스 부인이 이처럼 마녀의 유혹에 사로잡힐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비극적 결함이라 할 수 있는 상상력의 결여에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맥베스 부인이 초자연적인 마력에 사로잡혀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한 채로 행 하였다 할지라도 그녀에게 남겨있는 인간미는 살인에 따른 엄청난 결과로 그녀를 괴롭혀 최후에는 미치게 하는 벌을 받게 된다. 다시 말해서 굳은 의지력으로 지탱하여 온 맥베스 부인이지만 죄악이 거듭됨에 따라 그녀의 마음속에 억압되어 온 양심의 빛은 그녀의 신경을 흔들며 드디어 몽유병이라는 벌을 받아 결국은 자살하게 된다.

마녀들에게서 죄악의 원형을 발견할 수 있었던 제4의 마녀인 맥베스 부인에서도 맥베스의 범죄로 인하여 벌에 빠지게 하는 이브와 같은 역할을 한 죄의 원형을 찾을 수 있다. 말하자면 죄의 근원으로서의 마녀들과 맥베스 부인 동일선상에 있다 하겠다. 그러나 마녀들에게는 벌이 가해지지 않는 반면에 맥베스 부인에게는 아무리 씻어도 씻어지지 않는 죄책감, 남편과의 대화 단절 및 고립, 몽유병, 그리고 결국은 미친 상태에서 자살 할 수밖에 없는 형벌을 받는 점이 그 차이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2) G. Wilson Knight, *The Wheel of Fire*, New York: The World Publishing Co, 1962, p.152.

IV. 죄와 벌: Macbeth

『맥베스』에는 죄로 인한 인간영혼의 타락과 심판이라는 신학적 내용이 잘 제시되어 있는 작품으로 그것도 단순히 맥베스 개인의 타락과 심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맥베스로 대표되는 인류 전체의 죄악과 심판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칼빈은 죄란 모든 악덕들의 원천인 부패한 인간 본성이요, 이 인간본성에서 나온 악한 욕망들이다²³⁾고 정의했다. 이 같은 죄에 대한 정의는 대부분의 엘리자베스 시대의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셰익스피어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작품에 나타난 인물이나 배경 속에는 죄에 대한 그 자신의 생각이 투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맥베스는 용감하고 강직하며 상상력이 풍부하고 존경 받는 스코틀랜드(Scotland)의 한 장군이였다. 그는 용맹하며 특히 던컨 왕의 총애를 받는 장군이였다. 던컨 왕도 맥베스를 가리켜 “용감한 사촌, O, valliant cousin!”, “훌륭한 인물, Worthy gentleman!”(I. ii. 24) 이라고 부르면서 그의 용기를 칭송한다. 전쟁터에서 용기는 명예와 직결될 수 있는데 맥베스는 그가 전장에서 보여주는 용기와 장군으로써의 위엄으로 인해 “용감한 맥베스, Brave Macbeth”(I. ii. 16), “용기의 총아, Valour's minion”(I. ii. 19), “고귀한 맥베스, Noble Macbeth”(I. ii. 67)라고 칭송받는다.

맥베스를 고결한 인간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분명히 언어의 남용이라고 반박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맥베스가 마녀들의 유혹에 완전히 말려들기 이전에는 고결한 인간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는 죽음을 무릅쓰고 반란군을 무찌르는 과정에서 초인적인 면을 보여 주었고 나라와 국왕에게 충성을 다하였다. 그는 유혹에 걸려들었을 때에도 초기에는 건전한 판단력을 보이고 있다. 그는 던컨 왕과 식사를 중단하고 밖으로 나와서 거사에 대한 자신의 심정을 토로한다.

First, as I am his kinsman and his subject,
Strong both against the deed; then as his host,
Who should against his murderer shutthe door

23) J. Calvin. *op. cit.*. p.8.

Not bear the knife myself. Besides this Duncan
Hath borne his faculties so meek, hath been
So clear in his great office, that his virtues
Will plead like angels, trumpet-tun'd against
The deep damnation of his taking off
.....

"""" I have no spur
To prick the sides of my intent, but only
Vaulting ambition, which o'erleaps itself
And falls on th' other....

(I. vii. 13-28)

첫째, 나는 친척이요 신하니까 어느 모로 봐서나 도저히 시역은 안될 말. 또 나는 주인으로서, 문을 닫고 시역자를 막아야 옳지. 나 자신 칼을 들다니. 더구나 왕은 대권행사가 극히 온화하고 대행수행에 전혀 오점이 없으니 지금 시역을 하면 평소의 덕망은 천사가 부는 나팔같이 시역의 대죄를 규탄할 것 아닌가. 그리하여 연민의 정은 질풍을 걸터탄 별거숭이 갓난애나, 눈에 보이지 않는 천마에 걸터앉은 천사 같이 어디 계획의 옆구리에 자극을 가할 박차가 있어야지 있는 것이라고는 날뛰는 야심뿐, 도를 지나치면 도리어 저편에 나가 떨어지고 말렸다.

그는 공사 간 어느 경우에도 자신이 왕을 살해 할 입장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왕의 대권 수행 능력이 뛰어나서 시역의 명분도 없음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 또한 야망의 욕구가 인간에게 가져오는 결말이 무엇인가 하는 그의 철학적 소견도 분명하다. 시역이란 내세의 심판을 기다릴 것도 없이 현세에서 응징을 받는 극악무도한 범죄이며, 잔인한 죄의 악순환만을 초래 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현실 감각도 있다. 맥베스가 던컨 왕을 살해하고 벵코와 맥더프 가족 등 무고한 백성을 무자비하게 살육하기 시작한 때는 마녀들의 유혹에 완전히 사로잡힌 이후의 소행들이다. 마녀들의 외형은 어떻게 나타나든지 간에 극의 구성상으로 볼 때 주인공 맥베스를 과멸로 이끄는 직접적인 동인이 마녀이다.²⁴⁾

그러나 용감하고 고귀한 맥베스도 대권이라는 야망 앞에서는 서서히 무너지게 된다. 앞장에서도 보았듯이 맥베스가 벵코와 함께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도중 마녀들로부터 “글라미스의 영주 Thane of Glamis”(I. iii. 46), “코오더의 영주, Thane of Cawdor”(I. iii. 47), 그리고 “앞으로 왕이 되실 분, King hereafter”(I. iii. 48)이란

24) 조신권, 『영문학과 종교적 상상력』, 서울: 동인, 1994. p.67.

말을 듣는 순간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탐욕이 솟아나기 시작한다. 마녀들은 맥베스의 마음에 탐욕으로 감염 시켰다. 마녀의 유혹에 감염된 맥베스의 마음은 긴장감으로 두려워 한다. 이렇게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벵코는 맥베스에게 “장군 왜 놀라시오? 두려워하시는 구료. 듣기에도 솔깃한 일을? Good sir, why do you start and seem to fear Things that do sound so fair?” (I. iii. 29-55)이라고 맥베스에게 말한다.

마녀의 말에 얼마나 크게 감염 되었는가는 마녀들의 예언에 대하여 대단히 놀라고 당황 하는 데서 찾아볼 수 있다. 그는 코오더의 영주가 된다는 예언이 실현되자 마녀들의 예언에 이제는 완전히 사로잡힌다. 맥베스는 그의 탐욕과 던컨 왕의 시해를 동일시하고 있다.

Two truths are told,
As happy prologues to the swelling act
Of the imperial theme, - I thank you, gentleman. -
(Aside) This supernatural soliciting
Can not be ill, cannot be good,
If ill, why hath it given me earnest of success,
Commencing in a truth? I am Thane of Cawdor.
If good, why do I yield to that suggestion
Whose horrid image doth unfix my hair,
And make my seated heart knock at my ribs.
Against the use of the nature? Present fears
Are less than horrible imagination.
My thought, whose murther yet is but fantastical,
Shakes so my sight state of man,
That function is smother'd in surmise,
And nothing is, but what is not.

(I. ii. 127-142)

두 가지는 맞았다.

왕위를 건 장대한 연극의 좋은 서막이다.

두 분께 감사 하오

(방백) 이 신비로운 유혹은 흉조도 아니고,

길조도 아니다. 만일 나쁘다면 왜 먼저 진실에서 시작하여 내게 성공을 약속했을까?

나는 코오더의 영주.

만약 좋다면 왜 그 유혹에 빠져,

그 무서운 이미지를 생각만 해도 머리칼이 곤두서고

평안했던 심장이 가슴이 찢어질 듯 갈비뼈를 두들기나.

목전의 공포는 두려운 상상에 비하면 미미한 것.
살인이라는 나의 생각은 아직 공상에 불과한대도
내 완전한 왕국을 뒤흔들고 마음의 기능은
억측에 질식되어 눈에 뜨이는 것은
환영뿐이다.

맥베스는 어떤 것이 “선 fair”하고 어떤 것이 “악 foul”한지를 구별할 수 없다는 것은 깊은 종교적 윤리적 측면에서 볼 때 완전히 죄에 물들어 있다는 반증이 된다. 맥베스는 던컨 왕 살해에 대한 상상만으로도 이제는 그의 평안했던 마음도 두려움에 떨게 된다. 따라서 이 같은 방백을 통해서 이미 던컨 왕 살해라는 죄의 씨앗을 마음에 심어서 자라게 하고 있다. 제임스 왕은 악마들이 인간을 유혹해서 함정에 빠뜨릴 수 있는 요인으로 인간 내부에 상존해 있는 호기심(curiositie), 복수심(thirst of revenge), 욕심(greedie)이라는 세 가지 욕망(passions)을 들고 있다.²⁵⁾ 맥베스의 경우는 세 번째에 해당하는 과도한 욕망 때문인데, 맥베스의 이 같은 약점은 마녀들의 유혹에 빠지기에 충분한 것이다.

맥베스의 야심은 죄의 씨가 자랄 수 있는 계기를 갖지만 아직은 단순히 환상일 뿐이다. 상상력이 풍부한 맥베스에게 있어 상상은 실제 행동 보다 항상 앞선다. 그러나 맥베스가 겪는 운명의 핵심은 마녀들의 속임수를 헤아리지 못하여 “이 이상한 유혹은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다, This supernatural solliciting; Cannot be ill, cannot be good”(I. iii. 130-1)라고 판단하고 은연중 그들의 말을 믿고 실행에 옮기는 데서 부터 비롯된다. 던컨 왕의 사자인 로스(Ross)와 앵거스(Angus)를 통하여 두 번째 마녀의 예언이 적중된 것을 알게 된 맥베스는 “이젠 가장 큰 것 하나만 남아있구나, The greatest is behind”(I. iii, 118)라고 말함으로써 왕을 살해할 것을 생각하고 하고 있다. 바로 이어서 순간적으로 살해된 던컨 왕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다음과 같이 그의 마음을 토로하고 있다.

Why do I yeild to that suggestion
Whose horrid image doth unfix my fair,
And make my seated heart knock at my ribs,
Against the use of nature? Present fears
Are less than horrible imagining.

25) King James, I, *Daemonology*, 1597, p.8.

My thought, whose murder
yet is but fantastical,
Shakes so my single starts of man,
That function is smother'd is sunrise,
And nothing is, but what is not.

(I. iii. 134-141)

그 무서운 환상에 머리칼은 곤두서고
안정된 염통은 늑골을 쿵쿵 치고,
평소 같은 내 심장이 아니잖은가?
마음속 공포에 비하면, 눈앞의 불안쯤은 문제도 아니다.
아직은 공상에 불과하면서,
살인이란 생각은 내 약한
인간성을 어떻게나 뒤흔들든지
심신의 기능은 망상 때문에 마비되고,
환상밖에는 아무것도 눈앞에 보이지 않는구나.

이와 같이 맥베스는 이미 왕이 되려는 야심이 온몸 전체에 퍼져 있음을 볼 수 있다. 맥베스는 마음의 상상을 통해서 죽은 던컨 왕을 상상하며 머리칼이 서고 심장이 갈비뼈를 치는 두려움에 사로 잡혀있다. 맥베스는 왕위를 탐내어 던컨 왕을 살해하려 하지만 그의 양심은 왕의 신하된 도리로서 왕을 살해하는 것이 옳지 못한 행동임을 알기에 두려움에 싸여 있다. 그래서 맥베스는 “운으로 왕이 된다면, 뭐 가만히 있어도 운이 내게 왕관을 갖다 씌워 줄 것이 아닌가? If chance will have me King, why, Chance may crown me /Without my stir”(I. iii. 144-145)라고 말하며 마녀들의 예언에 맡긴다.

마음속에 악한 야심을 품고 있는 맥베스는 만물을 비추는 빛을 싫어한다. 따라서 그는 별들에게 빛을 감추어 달라고 기도한다.

Stars, hide your fires!
Let not light see my black and deep desires;
The eye wink at the hand; yet let that be,
Which the eye fears, when it is done, to see.

(I. iv, 50-54)

별들아 빛을 감추어라!
빛은 나의 지옥 같이 시커먼 야망을 보지 말고,
눈은 손이 하는 것을 보지 말라. 예잇, 단행하기로 하자. 결과를 눈이 보면 질겁할 일을.

맥베스의 기원대로 왕을 살해하는 일이 행해지던 밤에는 “하늘은 참 인색 하군, 하늘의 촛불을 죄다 꺼버리다니, There's husbandry in heaven; /Their candles are all out”(II. i. 4-5)처럼 달빛 하나 없게 되고 살해가 끝난 후에는 “암흑의 밤이 운행하는 등불인 태양의 목을 졸라매고 있구려, And yet dark night strangles the travelling lamp”(II. iv. 7)처럼 어두움이 온 세상을 뒤 덮었다.

왕을 살해 하고자 하는 그에게 그의 양심을 반영하는 단검의 환상으로 나타나 그의 악행을 경고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시역을 생각하고 있는 맥베스에게는 오히려 단검이 시역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고 상상하고 있다.

Is this dagger, which I see before me,
The handle toward my hand?
Thou marshall'st me the way that I was going;
And such instrument I was to see....
It is the bloody business which informs
Thus to mine eyes.

(II. I, 32~49)

아, 저건 단검이나, 칼자루를 내 손 쪽으로 향하고.....
그래 네가 길을 안내 하겠단 말이지.
나는 너 같은 연장을 쓸 작정이다!
아, 사라졌다. 잔인한 짓을 계획하니까 그런 것이
눈에 어른거리는 거지

맥베스가 던컨 왕을 죽이는 모습을 상상하자 단검의 환상이 나타났다. 그것은 본래 맥베스의 마음내부에 있는 야심이 단검의 환상으로 투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맥베스의 악한 야심에 경고하는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의 악한 야심에 이끌려 상상을 통해 살인을 미리 경험하고 있다.

마녀들의 심어준 죄에 깊이 빠진 맥베스는 맥베스 부인의 독려에 힘입어 드디어 던컨 왕을 살해한다. 그러나 던컨 왕 살해에 따른 벌은 처참하기만 하다. 이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약1:15)는 성서의 죄와 벌의 교리를 적확하게 따르고 있다.

던컨왕의 살해로 말미암아 오는 두려움은 맥베스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스코틀랜드 전역에 퍼진다. 죄악은 점점 더 커지고 “피는 피를 부르게, blood will have blood”(III. iv. 121)된다. 던컨 왕을 살해한 질서 파괴 행위의 범죄는 맥베스 자신

에게는 물론이거니와 스코틀랜드 전역에 퍼진다. 스펜서는 이런 점에서 『맥베스』의 세계가 리어왕(King Lear)의 세계보다 더 밀접하게 개인, 국가 그리고 자연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²⁶⁾ 죄는 점점 더 커지고 “피는 피를 부르게 되어, blood will have blood”(III. IV. 121) “피투성이의 보이지 않는 손, bloody and invisible hand”(III. ii. 48)이 작용 하는 밤에 뱅코도 피를 흘리고 죽는다. 죽은 뱅코의 유령은 맥베스로 하여금 “나는 피로 물들어 있다, I am in blood”(III. iv. 135)라고 고백하게 하고 있고, 맥더프 일가의 죽음은 맥더프로 하여금 “피, 피를 흘려라 불행한 조국아, bleed, poor country!”(IV. iii. 3)라고 절규하게 만든다. 또한 IV막 i장에는 마녀들은 물론 헤카테 그리고 “검은 정령, Black spirits”(IV. i. 44)과 “피부성이가 된 어린아이 유령, Apparition, a bloody child”(IV. i. 76)까지 등장한다. 이 모든 것은 맥베스의 죄악이 자연계는 물론 초자연계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을 말해 준다. 칼빈에 따르면 “한 사람의 살인이라도 온 나라를 악으로 물들게 한다, even of one man is a defiling of the whole country”²⁷⁾고 경고 하고 있는데 하물며 던컨을 위시해 수많은 사람이 살해된 스코틀랜드가 죄와 벌의 처참한 공간이 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마녀들의 유혹에 빠져 죄를 범한 맥베스에 대한 심판의 벌은 아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신과의 단절이다. 아퀴나스는 죄의 원인은 인간의 열정과 마귀의 유혹에 있고 죄에 대한 심판은 “신의 은총을 박탈하는 것, the withdrawal of grace is a punishment”²⁸⁾ 이라고 지적한 바 있는데, 신과 같이 되기를 원했던 아담과 마찬가지로 왕이 되려는 야망을 지닌 맥베스가 자연의 법칙인 신의 섭리에 맡기지 않고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 살인을 저지른 것은 “신의 은총으로부터의 타락, the falling from a state of grace”²⁹⁾ 결국 신의 보호를 상실함으로써 볼 수 있다. 맥베스는 왕을 살해한 후 “이 무슨 비참한 꼴이냐, This is a sorry sight”(II. ii. 20) 라며 기력을 잃는다. 그는 몽롱한 상태에서 두 침실 보초가 죽

26) T. Spencer, *op. cit.*, p.154

27) J. Calvin, *The Sermons of John Calvin upon the Fifth Book of Moses Called Deuteronomie*, trans. by Arthur Golding, 1583, 120th Sermons, on 21:1-9, p.736a.

28) Thomas Aquinas, *The Summa Theologica*, I-II. 87. 2.

29) Coursen, Jr., Herbert R. "In Deepest Consequence: *Macbeth*," *Shakespeare Quarterly*. Vol. XVIII, Autumn. No. 4. 1967. p.376.

던 모습을 맥베스 부인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One cried, "God bless us!" and, Amen,
the other, As they had seen me with these
hangman's hands. List'ning their fear,
I could not say, "Amen," When they did say,
"God bless us."

(II. ii. 26-29)

한 놈이 신이여 축복하소서하고 외치자, 또 한 놈이
아멘 이라고 했소. 마치 이 사형 집행인 같은 이 내손을
보기라도 한 것처럼 말 이오 그들이 겁을 먹고 신의 자비를
하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도 나는 아멘이라고 말할 수 없었던 말이오.

칼빈에 따르면 악행에 대한 신의 심판은 즉각적일 수도 있고 연기될 수도 있다고 한다.³⁰⁾ 그런데 맥베스는 환영 속에서 하늘로 부터 즉각적인 심판이라도 받은 듯 두려움에 떨고 넋을 잃는다. 그가 아멘이라고 기도 할 수 없음은 이제 완전히 신과는 교통할 수 없음을 나타낸다.³¹⁾ 이점에 대해 보우덴(H. S. Bowden)은 맥베스가 기독교적 의미의 치명적인 죄를 지은 죄책감을 표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³²⁾ 맥베스 부인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consider not so deeply”(II. ii. 29)라고 말하자, “나는 내가 한일을 생각하기가 무섭소, I'm afraid to think what I have done”(II. ii. 50)라며 괴로워하고 있다. 마치 “아담이 범죄 후 신의 낫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로 숨었듯이”(창 3:10) 두려움과 죄 의식으로 인한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하고 있다. 마치 선악과를 먹은 후 아담과 이브의 존재 양상이 달라졌듯이 살인을 경험한 맥베스도 다른 사람으로 변한 것이다.

그러므로 “물 한 방울이면 우리가 한 행위를 깨끗이 씻을 수 있다, a little water clears us of this deed”(II. ii. 66)라는 맥베스 부인의 말과는 대조적으로 두려움과 죄의식으로 가득 찬 맥베스에게 있어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손에 묻은 피는 넓은 바다를 점점 핏빛으로 변해 간다.

30) Calvin, Exp. Luke 13:1-3, *Commentaries*, Trans. Joseph Haroutunian,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58, p.281.

31) Anthony Harris, *Night's Black Agent*,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80, p.54.

32) H. S. Bowden, *The Religious of Shakespeare*, London: Burn & Oates, Limited, 1899. p.389.

What hands are here? Ha! They pluck out mine eyes.
 Will all great Neptune's Ocean wash this blood
 Clean from my hand? No, this my hand will rather
 The multitudinous seas incarnadine,
 Making the Green one red,

(II. ii. 59-62)

아, 무슨 손이 이 꼴이람? 아, 눈동자를 빼어내는 것 같구나.
 위대한 해신 넵튠이 큰 바닷물을 다 가지면 내 이 손의 피를
 깨끗이 씻어버릴 수 있을 까? 아니, 아니야, 이 손이 오히려 저
 넓고 넓은 바다를 빨강게 물들여, 파란 바다를
 핏빛으로 바꾸어 놓을 것이다.

손에 묻은 죄의 자국인 피를 씻으려는 간절한 생각과 내적으로 증가 되어가는 죄책감이 대조를 이루며 갈등이 고조 되어 간다. 그런데 푸른 바다가 핏 빛으로 변한다는 비유는 맥베스의 세계가 죄와 별로 범람할 것을 말한다. 던컨 왕의 피를 흘린 맥베스가 신과의 단절에 의해 겪게 되는 죄와 벌의 공간이 상당히 기독교적 분위기임을 보여주고 있다.

죄악의 상징인 피 묻은 손을 바라보며 공포에 떨고 있는 순간 고요함을 깨트리고 앞날에 올 절망의 고통을 알리기라도 하듯 문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린다. 이 노크 소리는 신이 범죄 후 숨은 아담에게 한 “네가 어디 있느냐?”(창 3:9)라는 신의 음성을 연상 시켜 주는 것과 같은 것으로서 맥베스의 양심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이기도 하다. 아담의 범죄와 마찬가지로 맥베스의 범죄는 지옥과 연결되고 있는데 자기 자신을 기적극의 전통적 인물인 “지옥의 문지기, Hell gate Porter”(II. iii. 2)와 동일시하고 있는 문지기(Porter)는 문밖의 인물들을 역설로 조롱하면서 그들 모두 지옥으로 초대하는 듯하다. 무어는 셰익스피어가 성의 문지기를 전통적 인물인 지옥 문지기와 연결시키는 목적은 맥베스의 성이 있는 인버네스(Inverness)를 지옥으로 생각하게 하려는 것이라고³³⁾ 지적하고 있다. 지옥문에 온 농부, 거짓말쟁이, 양복장이와 마찬가지로 자기의 역량을 넘어서서 스스로 속이고 권력에의 탐욕에 눈이 멀었던 맥베스 역시 지옥으로 초대받고 있다.

33) Muir, Kenneth. ed. *Macbeth*. The Arden Shakespeare. London: Methuen, 1977, p. xxiv.

악에 물 들은 맥베스는 그의 마음은 공포와 환상 또 계략과 살인으로 가득 차게 된다. 마치 마녀들이 온갖 것들을 넣고 끓이고 있는 가마솥처럼 맥베스의 마음은 뒤범벅인 채 들끓고 있다.

Double, Double toil and trouble
 Fire, burn; and cauldron, bubble
 (IV. i. 10-11)
 두 배나 신고해라, 두 배나 애를 써라.
 불길아 타올라라, 가마솥아 부글부글 끓어라.

이 가마솥이 끓는 장면도 “지옥의 잡탕, hell broth”(IV. I. 19)과 더불어 “유황불 붙는 불 못, the lake of fire burning with brimstone”(계 19:20)을 연상케 한다. 이 같은 지옥에 대한 이미지는 맥베스에게 붙여진 “지옥의 독수리, Hell kite”(IV. iii. 217), “지옥의 사냥개, hell hound”(V. viii. 3)등과 연결시켜 볼 때, “영영한 불, everlasting fire”(마 25:4)속에서 “영벌, everlasting punishment”(마 25:41)을 감수해야 할 맥베스를 상상할 수 있다. 그는 “지옥에 있는 어떤 악마의 이름보다 더 무서운 이름, hotter name than any is in hell”(V. vii. 6)를 가진 자로 조르젠슨이 지적한 바와 같이 그가 있는 곳은 어느 곳이나 지옥이 되고 있다.³⁴⁾ 프라이(Nonthrop Frye)가 “비극의 핵심은 악당의 배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의 고립에 있다, the center of tragedy is in the hero's isolation, not in a villian's betrayal”³⁵⁾고 지적할 때 그 이론은 맥베스와 맥베스부인에게도 적용되고 있다. 그들은 신과의 단절에서 오는 내적 혼란과 분열 상태 또 그로 인한 고독과 허무감에 싸여 있다. 하비지(Harbage)도 그 둘은 범죄이후 인간적 동료감이나 온정, 친밀감을 느껴본 순간이 없는 고립이라는 벌을 받고 있다고 지적한다.³⁶⁾ 그녀가 그렇게도 소원했고 공상 속에서 흥분하며 마음 설레었던 그 왕비 자리가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느끼며 맥베스 부인은 다음과 같이 토로 한다.

34) P. A. Jorgensen, *Our Naked Frailties: Sensational Art and Meaning in Macbeth*. Berkely: Univ. of California Press. 1971. p.139.

35) Nonthrop Frye, *Anatomy of Criticism*, Princeton: Princeton P. 1973. p.208

36) A. Harbage, *As they liked it*, New York: The Macmillan, Co. 1947. pp.184-5.

Naught's had, all's spent
Where our desire is got without content:
'Tis safer to be that which we destroy,
Than by destruction dwell in doubtful joy.

(III. ii. 4-7)

아무소용이 없다. 모든 아무소용이 없다. 모든 것은 헛일이다.
소망은 이루었지만 만족은 얻을 수 없다.
죽여 놓고도 참된 기쁨은 얻을 수 없으니,
차라리 없어져 버리는 것이 더 편할 것이다.

이 독백은 그들이 좇던 야망도 덧없는 허상일 뿐, 아담이 신과 단절 되었을 때 느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절망 상태는 고독하고 허무하고 불안하다는 것을 여실히 나타내 주고 있다. 왕을 살해 하면서까지 차지한 권력 속에서 덧없는 인생의 허무함을 맛보는 아이러니를 볼 수 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제 “모든 것은 장난감에 불과한 것, all is but toys”(II. iii. 92)이 되고 말았다. 루터가 “악한 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다 가질 수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양심이 쉴 수 없다면 무슨 달콤하고 진솔한 즐거움이 있겠느냐, Even if the wicked were to gain possession of everything that they wished, what sweet and pure enjoyment could they have if their conscience was not at rest”³⁷⁾고 했듯이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과 그 벌로 주어진 아담이 신과의 관계가 단절 되었을 때 허무함을 느낀 것처럼, 그들의 삶은 두려움과 좌절에 불과하다.

맥베스는 이성을 앞지른 불안한 행위만을 계속한다. 던컨 왕 시해 소식을 듣고 달려온 귀족들에게 자신의 결백을 가장하여 두 침실 보초에게 살인을 뒤 집어 씌운다.

Th' expedition of my violent love
Ostrun the pauser, reason.
(II. iii. 108-109)

폐하에 대한 나의 열렬한 사랑이
제어하려는 이성을 뛰어 넘은 것입니다.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던컨 왕을 살해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담이 선

37)Luther, *Reformation Writings of Martin Luther*, Vol. 2. ed. Bertram Lee Woolf, London: Lutterworth Press, 1956. p.36.

악과를 먹은 후 하나님이 왜 먹었느냐는 질문에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
 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창 3:12 라고 했듯이 맥베스
 는 오히려 충성 때문에 이성을 앞질러 두 침실 보초를 죽였노라고 변명한다. 그
 는 엄습해 오는 불안과 두려움을 초극하기 위해 악이 지배하고 있는 자기 자신
 의 세계에 갇혀 이성을 앞지른 죄만을 계속 범한다.

불안과 초조 속에서 이성을 잃고 행동하는 맥베스의 심판세계는 지금까지 보
 아 왔듯이 악의 연속이다. 아퀴나스도 인간이 한 가지 죄악을 저지르면 다른 죄
 를 쉽게 저지르게 된다고 보고 있다.³⁸⁾ 맥베스는 사악한 행위로 얻은 왕위를 안
 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왕이 되지는 못하나 왕을 낳으실 분, Thou shalt get
 kings; though be none”(I. iii. 67)이라는 예언을 들은 뱅코의 생명을 노리게 된
 다. 자식이 없는 맥베스는 던컨 왕 시해가 뱅코의 아들을 위한 것이 아닌가 하며
 불안 속에서 산다. 그는 왕위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결단
 하면서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운명아, 오너라! 최후까지 사생결단을 내자,
 Rather than so, come, fate, into list, And champion me to th'
 utterance.”(III. i. 70-71)라고 운명에 도전한다. 마녀의 예언에 속아서 악한 방법
 으로 차지한 왕위는 불안한 것으로써 그것은 “열매 없는 왕관, fruitless crown”(III.
 i. 60)이며 “헛된 황홀, barren sceptre”(III. i. 61)인 것이다. 그는 마녀에 속아 왕위
 를 악한 방법으로 빼앗았듯이 그의 왕위를 연장시키기 위해서는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행동이라도 자행하려는 마키아벨리적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악
 을 자행하면 할수록 그 악에 대한 그의 벌은 더 확대 되고 심화 된다. 죄인으로서 겪
 는 내적 갈등은 드디어 죽음으로 연결되고 있다.

Better be with the dead,
 Whom we, to gain our peace, have sent to peace,
 Than on the torture of the mind to lie
 In restless ecstasy.

(III. ii. 19-22)

마음의 고문을 받으면서 미칠 듯이
 불안하게 사는 것 보다 우리의 평안을 얻기 위해
 평화의 세계로 보내버린 그 사람과 같이 죽어 버리는

38) T. Aquinas, *op. cit.*, I-II. 75. 4.

편이 나올 것이다.

양심의 가책과 불안감으로 가득 찬 삶 대신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고 싶어 하는 맥베스는 “내 마음속엔 전갈로 가득 찬 것 같소, full of scorpions is my mind”(III. ii. 36)라며 자신이 저지른 죄 때문에 벌을 받고 있는 마음 상태를 토로한다. 이러한 표현은 심리적으로 선과 악 사이의 갈등이 고조되었음을 보여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실상을 보는 통찰력이 없었기 때문에 죄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에게 주어지는 벌은 “평온한 잠이나 식사가 없는 삶, a living, without peaceful sleep or peaceful feeding”³⁹⁾의 상태이다. 그러므로 그가 아무리 인위적으로 왕위를 견고하게 유지하려고 해도 계획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심각한 고민 속에 번민하고 있다.

극의 시초에서 나타나 장차 왕이 될 사람이라고 주문할 때 그의 늑골과 심장을 쥐어짜도록(I. iii. 136) 놀라게 한 두려움이 있었다. 살인을 저지른 후 맥베스는 들리는 모든 소리에 대해 “웬일일까? 무슨 소리만 나도 깜짝 깜짝 놀라게 되니, How is't with me, when every noise appals me?”(II. ii. 57)라고 고백하는 것은 칼빈의 지적대로 심한 내적 갈등이 있는 폭군이 가지게 되는 떨어지는 나뭇잎에도 놀라는 두려움이다.⁴⁰⁾ 이 같은 두려움은 이극의 심장부에 머물면서 맥베스와 맥베스 부인으로 부터 확대되어 스코틀랜드 전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거칠고 사나운 두려움의 바다에 표류하게 한다. 나이트도 이 공포야말로 맥베스 세계의 핵심에 머물면서 맥베스를 둘러싸고 있는 지속적인 감정임을 강조한다.⁴¹⁾ 그의 심한 공포감은 무사적인 주인공의 인간성을 자아내게 하고 나아가서 주인공의 이러한 인간성의 표출은 우리로 하여금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따라서 가끔 그가 표현하는 스스로의 죄악에 대한 뉘우침과 그의 인간적인 면을 표출해내는 극도의 공포감 그리고 장래에 대한 불안과 현세의 공포를 극복하려는 무사다운 뛰어난 용맹성은 우리로 하여금 연민의 정과 동정심 그리고 애수와 공감, 나아가서는 감탄마저 불러일으키게 한다.

로스가 맬컴에게 전하는 조국의 현실에 대한 다음과 같은 보고는 맥베스 개인

39) G. W. Knight, *The Imperial Theme*, London: Methuen, 1979. p.134.

40) Calvin, *Sermon of Job*, trans, Arthur Golding. London, 1574. p.227.

41) G. W. Knight, *The Wheel of Fire*. p.125.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공포의 심연에 떨어지고 있음을 잘 반영하고 있다.

But cruel are the times, when we are traitors,
And do not know ourselves; when we hold rumour
From what we fear, yet know not what we fear,
Each way, and move

(IV. ii. 18-22)

아무튼 무서운 세상이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반역자가 되어 버리고, 두려운 나머지
풍설을 믿지만, 실은 무엇이 두려운지도 모르오,
다만 미쳐 날뛰는 과도 위를 이리저리
떠다니고 있을 뿐이다.

맥베스가 저지른 죄가 만들어낸 절망의 세계는 두려움이라는 별로 가득 차 있다. 캠벨(Lily. B. Campbell)도 이 작품에는 온통 두려움이 가득하여 모든 소리와 이미지들은 두려움과 공포의 분위기를 연합하여 제공하고 있다⁴²⁾고 지적하고 있다. 이 두려움의 주제는 흑암의 세계와 연합하여 상승 작용을 하고 있다. 조르겐슨은 맥베스의 이 같은 두려움을 성서적 원형인 친족을 죽인 가인과 연결시키고 있다.⁴³⁾

아담이 신과의 단절되었을 때 느낀 것과 같은 그런 두려움 외에 맥베스가 죄의 대가로 받은 벌과 심판의 세계의 특징 중 또 하나는 불면이다. 밤은 만물에게 휴식을 취하게 하는 것이 자연의 섭리인 것이다. 그러나 맥베스는 숙면으로 휴식을 얻어야 할 밤에 계속적으로 악을 행하여 불면과 악몽에 시달린다. 무죄한 던컨 왕을 죽이고 난 직후 그는 다음과 같이 절규한다.

Me thought I heard a voice cry, "Sleep no more,
Macbeth does murder sleep, "the innocent sleep:
Sleep, that knits up the ravelled sleeves of care,
The death of each day's life, sore labour's bath,
Balm of hurt minds, great nature's second course,
Chief nourisher in life's feast:

(II. ii. 34-39)

42) Lily B. Campbell, *Shakespeare's Tragic Heroes*, London: Methuen & Co. LTD, 1961. pp. 238-39.

43) Paul A. Jorgensen. *op. cit.* , p.139.

나는 외치는 소리를 들은 듯하오. “이젠 잠을 잘 수가 없소!
맥베스가 잠을 죽여 버렸다.” 아, 천진난만한 잠이여, 근심
걱정의 엉킨 실타래를 풀어주는 잠이여, 매일 매일의 죽음인 잠이여,
힘겨운 노동 다음의 목욕이여, 마음의 상처를 아물게 하는 약이여,
대자연의 언제나 준비하고 있는 은혜이며,
이 세상향연의 최고의 자양분인 잠이여..

맥베스가 잠을 죽인 원인은 던컨 왕을 암살한 그의 내부의 심리적 상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클레멘은 맥베스가 잠든 던컨 왕을 살해한 것은 한 개인을 살해했다는 죄악뿐만 아니라 잠이라는 신성한 자연에게도 큰 죄를 지은 것으로 보고 있다.⁴⁴⁾ 그의 죽은 시체에 생긴 상처에서 “자연의 파기, a breach in nature”(II. iii. 3)를 발견한 맥베스는 던컨 왕을 살해한 후에 대자연이 베푸는 생명이며 자양분인 잠을 잘 수 없게 된다. 맥베스가 “이제 잠은 없다, sleep no more”(II. ii. 39)라는 외침은 죄를 범한 맥베스의 영혼에서 나오는 외침이다. 맥베스가 왕을 죽이는 죄를 범한 결과 국가적 질서를 깨트렸고, 그것은 바로 외부의 질서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내부의 질서인 마음의 평안을 깨트림으로써 잠을 잘 수 없는 벌을 받고 있다. 던컨 왕을 죽임으로써 자연이 주는 신성한 휴식인 잠을 잘 수 없는 것은 살인자의 양심에 무질서가 만연되어 있기 때문이다.

맥베스도 극심한 가책과 번민 때문에 더 이상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셰익스피어에게 있어서 잠은 선한 사람에게는 특권이 되고 죄 없이 결백한 사람에게서는 보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맥베스는 던컨 왕을 살해함으로써 신과 잠을 동시에 살해한 결과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던컨 왕을 살해할 마음을 먹고 “어두운 밤이 오너라, 그리고 지옥의 가장 캄캄한 연기로 너를 둘러싸게 하여라, Come, thick Night,/ And pall thee in the dummiest smoke of hell”(I. v. 51)며 암흑을 부르던 맥베스 부인도 암흑의 공포에 떨며 손에 촛불을 들고 걸어 다니는 몽유병에 시달린다.(V. i. 18) 맥베스 부인의 몽유병 장면은 바로 잠의 이미지가 이 작품에 기여하는 극적 효과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다. 신과 단절된 이들은 생명의 강장제인 잠을 빼앗기고 영혼이 완전히 고갈된 상태에서 죄만을 계속해 범한다. 이와 같이 신과 단절 되고 운명에 도전하며 악의 수렁에서 허우적대는 맥베스와

44) W. H. Clemen, *The Development of Shakespeare's Imagery*, Harvard University Press, 1951. p.101.

맥베스 부인의 고통 중 가장 무서운 벌이 “잠이라고 하는 달콤한 치료제를 잃는 것, a loss of the sweet curative of sleep”⁴⁵⁾ 이다. 맥베스와 맥베스 부인이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는 이유는 바로 “이 세상 향연의 최대 자양물, chief nourisher in life's feast”(II. ii. 39)인 잠을 살해했기 때문이다. 그는 잠이 든다 해도 시달리는 무서운 악몽에 시달려 밤마다 고통을 받아야 되는(III. ii. 17-19) 벌을 받고 있다.

맥베스 부인은 연회가 만신창이로 끝난 후 맥베스의 실신상태를 “모든 생물에 게 필요한 조미료가 되는 수면의 부족, lack the season of all natures, sleep”(III. iv. 140)이라고 진단하였다. 나이트가 잠과 관련하여 향연(feasting)에 주목하면서 잠과 향연은 자연에 필요한 창조적 소생의 힘이며 생명을 주는 두 가지요인인데 맥베스는 던컨 왕에게 향연을 베푼 후 살해했기 때문에 그의 행위는 단순히 한 인간에 그치지 않고 생명 그 자체를 살해한 것이다⁴⁶⁾ 라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그의 심판의 세계 중 불면은 던컨 왕 살해에서 오는 원천적인 벌이라고 할 수 있다.

맥베스가 받는 또 하나의 벌은 시간의 정지 상태이다. 그것은 그가 자연적 시간이 가져다 줄 미래의 당도를 기다리지 않고 일조에 미래를 자기 앞으로 당기려는 욕심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자연 질서인 시간의 파괴로 시간의 진행되지 않고 있다. 나이트가 “맥베스의 죄악은 시간을 혼란시킨 것, Macbeth's crime is an attempt to dislocate time”⁴⁷⁾이라고 지적하고 있듯이 맥베스가 던컨 왕을 죽인 암흑의 밤이 맥베스가 죽기까지 계속 그대로 멈춰 있다. 극의 시초에 개선하고 돌아온 맥베스에게 던컨 왕이 지위를 부여한 대로 자연의 섭리에 맡겼다면 맥베스의 시간은 자연스럽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인생의 실상과 허상을 구별하는 통찰력을 잃고 던컨 왕을 살해한 뒤부터 시간은 정지하고 연속된 악 때문에 시간은 무질서 속에서 뒤범벅이 되어 밤의 혼미 상태에 남게 된다.

맥베스 부인은 맥베스로 부터 왕이 되리라는 마녀들의 주문 내용의 편지를 읽고 현재를 뛰어넘어 미래를 상상하며 자기도취에 빠진다.(I. v. 56-58) 그러나

45) Knight, *The Wheel of Fire*, p.127.

46) Knight, *The Imperial Theme*, p.134.

47) Knight, *Ibid.* p.150.

그녀의 황홀함도 마녀들의 사주를 받아 던컨 왕을 살해한 이후에는 죽음의 세계인 죄악, 질병, 무질서만이 변성하여 시간은 정지된다. 다시 말해서 시간은 결코 미래로 성장하지 않고 악의 혼전만 거듭 된다.

맥베스는 맥더프가 잉글랜드(England)로 달아난 것을 안후, “시간아, 너는 내가 하려고 하던 무서운 일에 선수를 쳤구나, Time, thou anticipat'st my dread exploits”(IV. i. 144)라고 한탄하면서, 이제 부터는 충동에 따라 행동하고 시간을 앞지를 것이라고 결심한다. 그러나 시간은 결코 미래로 자라지 않고 정지하고 있다. 맥베스 부인은 지절인다.

To bed, to bed; there's knocking at the gate.
Come, come, come, come, give me your hand,
What's done cannot be undone. To bed, to bed to bed.
(V. I, 62-63)

자, 침실로, 침실로 누가 대문을 노크하고 있군요
자, 자, 자, 자 손을 이리
어찌할 도리가 없어요, 침실로 가세요, 어서, 어서, 어서.

던컨 왕을 살해한 직후에 들리던 노크 소리가 멈추지 않고 아직까지 그녀의 귀를 어지럽게 하고 있는 것은 맥베스 부인의 의식 속에서도 시간은 자라지 않고 그냥 던컨 왕을 죽이던 그 밤으로 멈춰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맥베스도 “내 인생길도 시들어서 누런 낙엽 기에 접어들었다, my way of life/ Is fall'n into the sere, the yellow leaf;”(V. iii. 221)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그의 시간도 자라지 않고 그대로 시들어 버렸음을 알 수 있다. “던컨 왕이 심은 식물, I have begun to plant thee”(I. iv. 28)인 맥베스는 마녀에 사로 잡혀 자라지 못하고 누런 낙엽이 되어 버렸다. 그에게 있어서는 시간 그 자체가 시들어 썩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가 점점 쓸쓸해지고 어떤 희망조차도 없이 생에 대한 지루한 혐오감과 끊이지 않는 두려움의 수렁에서 허우적대고 있다. 무엇이든지 인위적으로 해결하려는 맥베스는 다음과 같이 시간의 정지 상태에서 오는 절망감을 해결하려고 진력한다.

Canst thou not minster to a mind diseas'd,

Pluck from the memory a rooted sorrow,
Raze out the written troubles of the brain,
And with some sweet oblivious antidote
Cleanse the stuff'd bosom of that perilous stuff
Which weighs upon the heart?

(V. iii. 40-45)

그대의 마음의 병은 도저히 고칠 수 없단 말인가,
기억 속에서 뿌리 깊은 비탄을 뽑아내고,
뇌리에 새겨진 고통을 지울 수는 없단 말인가.
그래도 만사를 잊게 하는 감미로운 약을 가지고
마음을 억누르는 독을 제거하여, 가슴 속을
시원하게 해줄 수는 없단 말인가?

던컨 왕 살해로 인한 고통과 번뇌로 짓누르는 마음의 병을 치료할 약을 찾고 있지만 이 시간의 정지라는 벌은 인위적으로 결코 치유 되지 않는다. 그는 계속해서 소용없는 악의 도전으로 자신을 기만할 뿐이다. 그는 계속해서 소용없는 악의 도전으로 자기 자신을 기만할 뿐이다. 그 결과 맥베스는 영혼의 고갈 상태를 맞게 되어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

I'gin to be aweary of the sun,
And wish th' estate o' th' world were now undone.-
Ring the alarm bell!-Blow wind! come, wrack!

(V. v. 49-51)

나는 햇빛을 보는 것도 지겨워졌다.
이 세계의 질서가 다 부서져 버리면 좋겠다.
경종을 울려라! 바람아, 불어라! 파멸아, 오너라!

태양조차 보기 싫어진 그는 이제 스스로 파멸을 부른다. 내면에 내재한 악의 지시대로 행한 맥베스에게 시간은 무(nothing)로 인도되는 악의 반복일 뿐이다. 시간의 정지 상태에서 그에게는 모든 것이 다 무이기 때문에 아내의 죽음에 대한 소식마저 그에게는 무의미하다.

맥베스뿐만 아니라 전 스코틀랜드가 시간의 정지 상태에서 굶고 썩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 시간의 정지 상태라는 벌은 인간 어느 누구도 치유하지 못한다. 몽유병에 걸린 맥베스 부인을 치유하러 온 의사가 “당신에게 더 필요한 것은 의사가 아니라 목사다, More needs she the divine than the physician”(V. i.

71)라고 판단하고 있듯이 맥베스의 죄악으로 인한 벌의 치유는 오직 신의 은총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신의 은혜, grace of God”(V. ix. 38)의 표상인 맥컴의 출현에 의해서만 “태평성대, the time is free”(V. ix. 21)로 승화될 수 있다.

맥베스가 받는 마지막 벌은 그의 부인과 자신의 죽음이다. 피로 인한 벌을 받고 있는 맥베스에게는 지위나 체면을 생각할 마음의 여유조차 없고, 그의 이성은 감정에 완전히 지배당하여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지성과 도덕이 파괴되어 도덕적 지적공황의 형벌을 받고 있다. 맥베스는 인생의 영화와 기쁨을 다 빼앗긴 채 암흑 형벌 속에 죽음의 삶을 살았다. 그는 그의 영혼 속에 있는 죄를 정복하지 못하고 그의 조국인 스코틀랜드를 어둠으로 채우면서 두려움과 고통의 형벌 속에서 살고 있다. 맥베스는 부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다음 장면에서 알 수 있듯이 아직도 던컨 왕 시해라는 범죄에 대한 기억으로 두려움과 공포 속에 빠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Cure her of that:
 Cannot thou not minister: to a mind diseas'd,
 Pluck from the memory a rooted sorrow,
 Raze out the written troubles of the brain,
 And with some sweet oblivious antidote
 Cleanse the stuff'd bosom of that perilous stuff
 Which weighs upon the heart?

(V. iii. 39-44)

그러기에 그걸 고쳐달라는 거요.
 그래 마음의 병을 고쳐줄 수 없단 말이오.
 뿌리 깊은 근심을 마음에서 뽑아내고
 뇌수에 찍혀진 고뇌를 지워줄 수 없단 말이오?
 상쾌하고 감미로운 망각제(忘却劑)라도 써서
 맘을 짓누르는 위험물을 답답한 가슴으로부터
 제거해줄 수는 없단 말이오?

의사 보고 맥베스 부인의 병과 스코틀랜드를 고쳐달라고 한다. 그 어떤 망각제를 써 보아도 부인뿐만 아니라 스코틀랜드 전체가 병들어 있는 상황에서 어떤 약으로도 맥베스의 범죄로 인해 생긴 병을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고 한다. 맥베스는 병을 고치고 성자의 이미지로 부각되는 영국의 에드워드(Edward)왕과

는 달리 맥베스부인, 나아가서 스코틀랜드 전체를 병들게 한다.⁴⁸⁾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더 큰 범죄로 차지한 왕위는 도리어 맥베스로 부터 모든 것을 빼앗아 형벌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

I have liv'd long enough: my way of life
Is fall'n into the sere, the yellow leaf;
And that which should accompany old age,
As honour, love, obedience, troops of friends,
I must not look to have; but in their stead,
Curses, not loud, but deep, mouth -honour, breath,
Which the poor heart would fain deny, and dare not.

(V. iii. 22-28)

이제는 살만큼 살았다. 내 생애도
황색 낙엽기다. 더구나 노년이의 벗이라
할 명예, 애정, 복종 교우 같은 것은
나와는 전혀 인연이 없다. 아니 반대로
소리는 낮으나 뿌리 깊은 저주, 아침, 빈말
따위가 달라붙는데, 물리치고 싶어도
마음이 약해서 어디 물리칠 수 있어야지.

성 밖에서는 맥베스를 처벌하기 위한 응징 군과 성안에는 병들어 누워있는 맥베스 부인은 정신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맥베스에게 더욱 더 큰 고통의 벌을 가중시켜 주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기진맥진한 가운데서도 그의 용장으로서의 위치를 무너뜨리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이것은 왕을 살해한 범죄의 결과로서의 맥베스의 고립의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완전히 현실과 고립 된다는 것은 견디기 어려운 형벌이다. 지금 이러한 형벌이 맥베스에게 가해지고 있는 것이다. 맥베스는 범죄 하기 이전의 자신과 비교하여 현재의 자신의 모습을 담담하게 토로하고 있다.

I have almost forgot taste of fears.
The time has been, my senses would have cool'd
To hear a night-shriek; and my fell of hair
Would at a dismal treatise rouse, and stir,
As life were in't, I have supp'd full with horrors:

48) Caroline F. E. Spurgeon. *Shakespeare's Imagery and What It Tells Us*,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71. p.332.

Direness, familiar to my slaughterous thoughts,
Cannot once start me.

(V. v. 9-14)

이제는 공포의 맛도 거의 다 잊어버렸어.
밤에 비명을 들으면 오감이 썩어빠진 시절도 있었겠다.
무서운 이야기를 들으면 머리칼이 살아있는 양
빠죽 서서 움직이던 때도 있었겠다.
공포는 실컷 맛본 나다
이젠 살인의 기억도 예사가 되고
아무리 무서운 일에도 나는 끄덕 하지 않거든.

살인에 대한 범죄 행위도 예사가 되어 버리고 두려움과 공포도 실컷 맛본 맥베스는 아무리 무서운 일에도 놀라지 않는다고 말함으로써 그의 범죄에 대한 처벌은 점점 더 다가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맥베스 부인의 죽음 때문에 들려오는 울음소리에 놀라지 않고 초탈한 자세를 취한다. 또한 그는 평생의 동반자요, 공모자였던 맥베스 부인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도 그녀에 대해서 다정한 말 한 마디 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죽어야 할 사람. 한 번은 그런 소식이 있고야 말 것이 아닌가? She should have died hereafter:/There would have been a time for such a word.”(V. v. 17-18)라고 말하는데 이는 자신에게 닥칠 형벌도 바로 눈앞에 다고 오고 있음을 예시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맥베스는 여인들의 목소리로 맥베스 부인이 죽었음을 직감한다. 그러나 그는 감각이 없다.

Direness, familiar to my slaughterous thoughts,
Cannot more start me,

(V. v. 14-15)

공포는 살육에 길든 내 마음에 익숙해져 버려
이제 나를 놀라게 하지 못한다.

맥베스는 던컨 왕을 죽이고 난 후 공포에 떨었던 때와는 전혀 달리 이제는 공포감마저 잊어버리고 아무리 무섭고 끔찍한 일이라 해도 놀라지 않을 정도로 정서가 메마르고 쇠잔한 지점에 이르렀다. 맥베스가 그의 강한 상상력의 근원이었던 그 공포감마저도 느끼지 못한다면 그에게서 이제 윤리성을 찾기는 어렵다. 그는

부인의 사망 소식을 듣자 인생을 체념이라도 하듯 절망과 허탈감에 빠진다. 맥베스 부인의 죽음은 맥베스에게 인생의 희망, 즐거움 그리고 삶의 의미가 사라져 버린 데서 오는 실망만을 안겨 주었다.

그가 원 했던 명예, 애정 그리고 친구들과 같은 모든 것이 사라진 그에게 있어, 인생이란 “걸어 다니는 그림자, Life's but a walking shadow”(V. v. 24)에 불과하다. 아담과 이브에서 보는 것처럼, 신과의 관계가 두절된 인간은 오직 허무함을 노래할 수밖에 없다. 형벌 속에서 죽어 가면서 인생의 허무함을 시적 언어로 표현하는 모습, 비록 범죄 하여 타락한 인간이지만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있는 맥베스의 모습을 보고서 돌을 던질 수 없는 주인공 맥베스를 보게 된다. 맥베스가 죄를 범하고 벌을 받고 있는데서 사람들이 동정을 느끼는 것은 그의 시적인 언어에 있다. 맥베스 부인과의 유대 관계까지 단절된 채 고립되어 오직 마녀들에게만 의지하여 범죄의 길을 걸었던 맥베스는 그들의 예언에 의해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말뚝에 이미 깊이 박혀 있어서 무서운 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맥베스는 지난날을 회고해 보면서 자신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못 인간으로부터 고립되어 고독했고 공포와 불안 속에서 무의미하게 소비되었고 이제는 인생 자체의 종말이 다가 오고 있음을 알고 있지만 끝까지 저항하고 있다. 그가 불가능한 것으로 믿고 있던 버넘 숲도 움직이고 여자가 낳지 않고 달이 차기 전에 배를 가르고 태어난 맥더프도 등장한다. 이제야 자신의 “영혼, eternal jewel”(III. i. 68)을 “인간의 적, the common enemy of men”(II. i. 68)인 마녀에게 팔아 버렸다는 것을 알고 절망하지만 그에게 내리는 형벌은 맥더프에게 살해되는 죽음뿐이다. 죄는 인간이 스스로 신적인 영역으로 올라서려는 것이며, 자신과 세계의 중심에 자신을 세우는 것이다. 그것의 주된 징조는 인간이 자신의 유한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있다. 따라서 맥베스의 범죄는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신으로부터 그 자신을 소외시키는 벌을 받게 되었으며, 신과 맞서는 반역의 죄를 저지른다.

맥베스는 마녀들이 심어준 최악의 씨앗을 그대로 받아시킴으로써 최악의 수렁에 깊이 빠져 점점 더 커다란 죄를 짓게 되며 최악에 따른 심판의 벌을 받는다. 그러나 맥베스가 받은 벌은 맥베스 개인에게만 제공되는 것이 아니다. 칼빈이 “인간 본성에는 비참함과 고통 밖에는 아무것도 없고 다만 악취와 전염병에 가

득 찬 끝없는 최악의 심연이 있을 뿐이다, there is nothing at all our nature but wrechedness and misery; nothing but bottomless pit of strength and infection”⁴⁹⁾라고 인간의 완전 타락을 지적했듯이 아담과 마찬가지로 맥베스는 처참한 벌을 받고 있다.



49) John Calvin, *Slection of the Most Celebrated Sermons of John Calvin*, Philadelphia: C. Deslver, 1856. p. 23.

V. 결 론

지금까지 필자는 셰익스피어의 『맥베스』를 텍스트로 하여 이 작품에 나타난 죄의 제반 양상들과 그에 따른 벌에 대하여 기독교적 의미의 죄론을 접목하여 분석연구 하였다.

세 마녀는 이 극에서 맥베스가 파멸할 때까지 죄에 빠지게 되는 원인이 된다. 그들은 어둠의 앞잡이고, 애매한 말로 맥베스를 유혹하여 파멸에 이르게 하는 자들이다. 마녀들은 거짓말 하는 자 들이며, 어둠과 무질서에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마녀들은 한편으로는 맥베스의 영광을 예언했던 입으로 또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범하고 파멸될 것을 예언하였다. 마녀들은 처음에는 맥베스에게 왕이 될 것이라는 죄의 씨앗을 심었고 이제는 구체적이고도 대담하게 살생을 하라고 지시함으로써 그들은 어떤 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맥베스를 파멸로 이끌고 있다. 말하자면 마녀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악한 목적을 가지고 이 극에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선을 악으로 끝맺게 하는 마력을 이용하여 맥베스를 유혹한다. 이것은 야심을 가진 맥베스로 하여금 쉽게 유혹되어 죄에 빠져 파멸하도록 한다. 결국 마녀들은 맥베스를 파멸로 이끄는 실체적 존재들이다.

마녀들은 죄의 근원으로서, 맥베스의 죄를 이끌어내는 근원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맥베스』에 나타난 마녀들과 맥베스의 관계를 분석해보면 마녀들은 신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인류를 죄악으로 이끌어 파멸하게 만든 뱀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마녀들의 유혹에 속아 죄를 범한 파멸의 길을 걷고 있는 맥베스에서는 아담의 원형을 찾을 수 있다. 마녀들은 맥베스를 포함한 모든 인간들을 유혹하여 악의 열매를 맺도록 충동 하고 있는 근본적인 죄악의 근원인 것이다.

던컨 왕 시해 계획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맥베스 부인은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그 어떤 수단도 정당화시키는 악인의 역할을 하고 있다. 맥베스 부인은 악령에게 여자의 마음을 버리고 머리 꼭대기부터 발끝까지 잔인한 마음을 가득 채워 달라고 기도한다. 그녀는 세상을 속여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세상사람 들이

모르게 하기 위해서, 겉으로 순진한 꽃처럼 보이게 하고 실은 악을 계획하고 있는 뱀이 되어야 한다고(I. v. 63-64) 맥베스를 독려하여 그를 파멸로 이끈다. 이 같은 모습은 아담을 타락시킨 이브의 행동과 흡사 하다.

그러나 던컨 왕 살해 이후에 한 대야의 물만 있으면 쉽게 씻어질 줄 알았던 손에 묻은 피의 흔적은(II. ii. 66) 아라비아의 모든 향수로도 지워지지 않는다.(V. i. 47) 초자연적인 마녀에 사로잡혀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한 채 야망에 눈이 멀어 맥베스를 타락하게 만들지만 그 결과로 받는 벌은 처참하기만 하다. 맥베스 부인은 죄로 인하여 아무리 씻어도 씻어지지 않는 죄책감, 남편과의 대화 단절 과 고립, 몽유병, 그리고 결국은 미친 상태에서 자살할 수밖에 없는 벌을 받는다. 다시 말해서 굳은 의지력으로 지탱하여 온 맥베스 부인이지만 죄악이 거듭됨에 따라 그녀의 마음속에 억압 되어 온 양심의 빛은 그녀의 신경을 흔들어 드디어 몽유병이라는 벌을 받게 되었다. 마녀들에게서 죄악의 원인을 발견할 수 있었던 제4의 마녀인 맥베스 부인에서도 맥베스의 범죄로 인하여 형벌에 빠지게 하는 이브와 같은 역할을 한 죄의 원형을 찾을 수 있다. 말하자면 죄의 근원으로서의 마녀들과 맥베스 부인은 동일 선상에 있다 하겠다.

맥베스는 마녀들의 유혹에 말려들기 이전에는 고결한 인간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는 생명을 무릅쓰고 반란군을 무찌르는 과정에서 나라와 국왕에게 충성을 다한다. 그는 유혹에 걸려들었을 때에도 초기에는 건전한 판단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맥베스는 마녀들의 유혹에 완전히 사로잡히고 맥베스 부인의 강력한 독려에다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의 야심이 합력하여 던컨 왕을 살해하는 죄를 범하고 타락한다. 이 과정은 신학적 죄론에 정확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맥베스에서 아담의 원형을 찾을 수 있다.

마녀들의 유혹에 빠져 죄를 범한 맥베스에 대한 심판의 벌은 아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선 신과의 관계 단절이었다. 맥베스는 마치 아담이 범죄 한 후 신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로 숨었듯이 두려움과 죄의식으로 괴로워하고 있다. 그리고 마치 선악과를 먹은 후 아담과 이브의 존재 양상이 달라졌듯이 살인을 경험한 맥베스도 다른 사람으로 변했다. 맥베스가 죄의 대가로 받은 또 다른 벌은 불면증이었다. 맥베스가 잠을 죽인 원인은 맥베스가 왕을 죽이는 죄를 범한 결과 국가적 질서를 깨트렸고, 또한 자기 자신의 내부의 질서인 마음의 평안을 깨트

림으로써 잠을 잘 수 없는 벌을 받고 있다. 맥베스가 받는 또 하나의 벌은 시간의 정지 상태이다. 맥베스가 던컨 왕을 죽인 암흑의 밤이 맥베스가 죽기까지 계속 그대로 멈춰 있다. 맥베스가 받는 마지막 벌은 그의 부인과 자신의 죽음이다. 맥베스 부인의 죽음은 맥베스에게 인생의 희망, 즐거움 그리고 삶의 의미를 빼앗아 갔다. 그가 원했던 명예, 애정 그리고 우정을 포함한 모든 것이 사라진 그에게 있어 인생이란 “걸어 다니는 그림자, walking shadow” (V. v. 23)에 불과하다.

맥베스는 마녀들이 심어준 죄악의 씨앗을 그대로 받아시킴으로써 죄악의 수렁에 깊이 빠져 점점 더 커다란 죄를 짓게 되며 죄악에 따른 심판의 벌을 받는다. 그러나 맥베스가 받은 벌은 맥베스 개인에게만 제공되는 것이 아니다. 처참한 벌을 받고 있는 맥베스는 타락한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으로 확대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맥베스는 한 개인일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상징체로 볼 수 있다.

『맥베스』는 셰익스피어가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인 죄악을 초자연계에 속하는 마녀들과 자연계에 속하는 맥베스 부인 그리고 맥베스에게 적용하여 인간이 죄악으로 인하여 얼마나 타락하여 비참하게 벌을 받고 있는가를 잘 선포하고 있는 작품이다. 다시 말해서 신학적 의미의 죄가 문학이라고 하는 예술 속에 절묘하게 투영된 작품인 것이다.

Bibliography

- 이경식, 『셰익스피어』.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3.
- 이대석, 『셰익스피어 극의 이해』.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2.
- 조신권, 『영문학과 종교적 상상력』. 서울: 동인, 1994.
- 최재서, 『셰익스피어 예술론』. 서울: 을유문화사, 1963.
- 『브리태니커 세계대백과사전』. *Britannica World Encyclopedia* Vol. 17.
서울: 브리태니커 동아일보공동출판. 1993.
- 『세계대백과사전』. vol 24. 서울: 동서 문화 출판. 1993.
- 『세계철학대사전』. 서울: 교육출판사. 1998.
- 『학원세계대백과사전』. vol 26. 서울: 학원출판공사. 1993.
- 김 재남 역 『셰익스피어전집』 (3정). 서울: 을지서적. 1995.
- Gibson, Rex. *Macbeth*. Cambridge School Shakespear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 Muir, Kenneth. *Macbeth*. The Arden Shakespeare. London: Methuen, 1977.
- Aquinas, Thomas. *The Summa Theologica*, trans. Fathers of the English Dominican Province, London: R & T. Washbourne, Ltd., 1915.
- Bowden, Henry Sebastian. *The Religion of Shakespeare: Chiefly from the Writings of the Late Mr. Richard Simpson*. London: Burn & Oates, Limited, 1899.
- Bradley, Andrew Cecil. *Shakespearean Tragedy*. Lectures on Hamlet, Othello, King Lear, Macbeth London: Macmillan Press, 1958.
- Calvin, John. *Selection of the Most Celebrated Sermon of John Calvin*. Philadelphia: C. Desilver. 1856.
-Exp. Luke 13:1-3, *Commentaries*, Trans. Joseph Haroutunian,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58.
- Sermon of Job*, trans. Arthur Golding, London: 1574.

- Institutes of Christian Religion*. 2 vols., ed. John T. McNeil and trans. Ford Lewis Battle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0.
- The Sermons on Deuteronomy*. trans. Arthur Golding, London, 1583.
- Campbell, Lily B. *Shakespeare's Tragic Heroes*. London: Methuen & Co. Ltd, 1961.
- Charlton, H. B. *Shakespeare Tragedy*,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52.
- Clemen, W. H. *The Development of Shakespeare's Imagery*. London: Methen, 1951.
- Curry W. C. *Shakespeare's Philosophical Patterns*. Glouster, Mass: Peter Smith, 1968.
- Coursen, Jr., Herbert R. "In Deepest Consequence: *Macbeth*," *Shakespeare Quarterly*. Vol. XVIII, Autumn. No. 4. 1967, p. 376-388.
- Felperin, Edward. *Shakespearean Representa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7.
- Frye, N. *Anatomy of criticism*.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3.
- Godshalk, William Leigh. *Patterning in Shakespearean Drama*. Mouton: University of Cincinnati, 1973,
- Harbage, A. *As they liked it: an Essay on Shakespeare and Morality*. New York: The Macmillan, Co. 1947.
- Harris, Anthony. *Night's Black Agent*.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80.
- Hobson, Alan. *Full Circle : Shakespeare and Moral Development*. London: Chatto & Windus, 1972,
- Jorgensen, P. A. *Our Naked Frailties: Sensational Art and Meaning in Macbeth*. Berkely: Univ. of California Press. 1971.
- Kahn, Coppelia, *Man's Estate, Masculine Identity in Shakespeare*,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1.
- King James, I, *Daemonology*, 1597,
- Knight, G. Wilson *The Wheel of Fire*. New York: The World Publishing Co, 1962.

- *The Imperial Theme*, London: Methuen, 1979.
- Luther, Martin. *Reformation Writings of Martin Luther*. 2 vols., ed. Bertram Lee Woolf, London: Lutterworth Press, 1956.
- Muir, Kenneth. *Shakespeare's Tragic Sequence*. Liverpool: Liverpool University Press, 1979.
- Ribner, Irving. *Patterns in the Shakespearean Tragedy*. London: Methuen Co. Ltd, 1960.
- Rossiter, A. P. *Angel with Horns*, ed. Graham Story. London: Longman, 1970,
- Spencer, Theodore. *Shakespeare and the Nature of Man*. New York: Macmillan Company, 1961.
- Spurgeon, Caroline F. E. *Shakespeare's Imagery and What It Tells Us*.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71.
- Spencer, Theodore,¹ *Shakespeare and the Nature of Man*. London: Collier-Macmillan Ltd, 1968.
- Tillyard, E. M. W. *The Elizabethan World Picture*. New York: Vintage Books, 1945.
- Weisinger, Herbert. "The Myth and Ritual Approach to Shakespearean Tragedy", *Twentieth Century Criticism*, ed. W. Handy & M. Westbrook, New Delhi: Light & Life, 1974. p 295-310.

ABSTRACT

A Study of The Sin and Punishment in *Macbeth*

Yang Too-Shin

Dept. English Lang & Lit.

Graduate School

Ch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or: Prof. Kwon Young Keun

In this thesis I have attempted to study the sin and punishment as reflected in William Shakespeare's *Macbeth*(1606). I have made efforts to analyze the inner world of Macbeth and thereby illustrate the cause of the miseries of his life. In doing so I used the Christian doctrine of sin and punishment as a method to analysis the text. Witches are the instruments of evil. As the devil's agents they render themselves as the major cause for Macbeth's downfall. According to their evil purpose and intent, they lead Macbeth to destruction. Macbeth had wild ambitions. The witches utilize this condition in enticing Macbeth to commit sins, and fall. Accordingly the witches become the instrument to cause the sinful desires embedded in Macbeth to be manifested in the physical world. A close look 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witches and the main character, Macbeth indicates that the witches play the role of the serpent which led the human race to destruction,

Lady Macbeth who masterminds the plan to assassinate King Duncan plays a wicked role. In order to fulfill the purpose she employs whatever means available. After assassinating King Duncan, she is bothered by the

sense of guilt. She used to think that she could easily wash away the stains of guilt with a gallon of water. But she confesses that she is unable to wash away the bloody hands even with Arabian perfume. The wages of the Lady Macbeth's sins include the sense of guilt, loss of the communication with her husband, sleep disorder, and manic depression resulting in suicide. Just as the witches serve as a prototype of an evil, so also in Lady Macbeth, we can find the fourth witch, a symbol of Eve who led Adam to fall. Macbeth fell victim to the witches' temptation. By the Lady Macbeth's instigation and wild ambition, he ends up murdering the King Duncan. The process of his down fall is consistent with the biblical doctrine of sin and punishment; it coincides with the example of the fall of the first man, Adam. As was the case with Adam, so also upon sinning Macbeth gets penalized with the separation from God and the fear of judgment. Insomnia is also one of the wages of his sin.

In order to become a King, Macbeth assassinates a King, Duncan. He also destroys other innocent people. As a result he breaks not only the national law but also the internal order, so he comes to be punished by the restlessness and insomnia. As of the time of his murder, time stops on him, so that from that moment on he remains locked up in the box of the time frame, the time at which he assassinated the King Duncan. The last wage of his sin is the death of himself and his wife. The death of the Lady Macbeth took away from him the meaning, hope, and joy of life. His life was reduced to nothing but a walking shadow. The witches sowed in Macbeth the seed of evil which bore fruit, so he comes to be punished for his sins. The law of sin and punishment applies not just to Macbeth alone but all who commit crimes, so that we can suggest Macbeth is a symbol of the entire human race.

In *Macbeth* Shakespeare vividly describes man's sinful nature and the

consequences of man's sin, taking the major characters such as the witches, Lady Macbeth and Macbeth. In other words the theological doctrine of sin and punishment are artificially reflected in the literary masterpiece in *Macbeth*.

